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57215

**VIVALDI:
CHAMBER CONCERTOS**László Kocsikmeti, recorder
László Hadady, oboe
Attila Falvai, vio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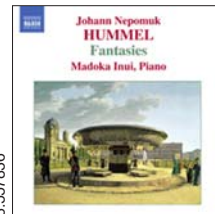
8.557621

**BACH, J.S.:
ALTO CANTATAS VOL.1
(BWV 53, 54, 169, 170, 200)**Cologne Chamber Orchestra
Helmut Müller-Bruhl, cond.

8.557249

**BUXTEHUDE
7 SONATAS, BUXWV 259-265**John Holloway, violin
Jaap ter Linden, viola da gamba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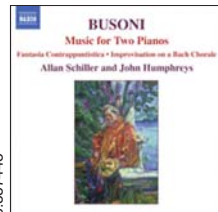
8.557568

**SCHUBERT:
LIED EDITION 20
POETS OF SENSIBILITY, VOL.3**Wolfgang Holzmair, baritone
Ulrich Eisenlohr,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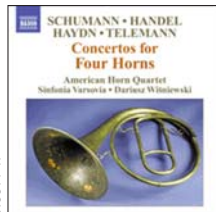
8.557836

**HUMMEL:
FANTASIES (COMPL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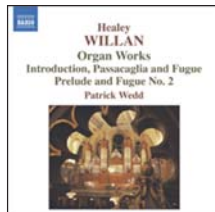
Madoka Inui, piano



8.557443

**BUSONI:
MUSIC FOR 2 PIANOS
FANTASIA CONTRAPPUNTISTICA**Allan Schiller, piano
John Humphreys, piano

8.557747

**CONCERTO FOR 4 HORNS
SCHUMANN: KONZERTSTÜCK, OP. 86
HAYDN: SYMPHONY NO. 31, 'HORN SIGNAL'**American Horn Quartet
Sinfonia Varsovia
Dariusz Wisniewski, conductor

8.557375

**WILLAN:
ORGAN WORKS
CHORALE PRELUDE ON
A MELODY BY GIBB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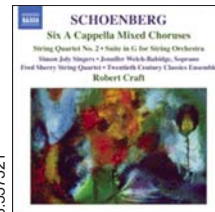
Patrick Wedd, organ



8.557496

**PLEYEL:
STRING QUARTETS,
OP. 2, NOS. 1-3**

Enso Quart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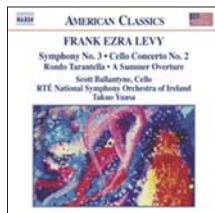
8.557521

**SCHOENBERG:
A CAPPELLA CHORUSES STRING
QUARTET NO. 2 SUITE IN G MAJOR**Jennifer Welch-Babidge, soprano
Simon Joly Singers
Robert Craft,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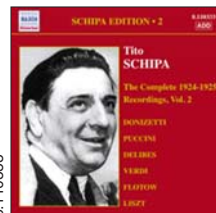
8.557693

**MAYUZUMI:
BUGAKU, MANDALA SYMPHONY
RUMBA RHAPSODY**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Takuo Yuasa, condu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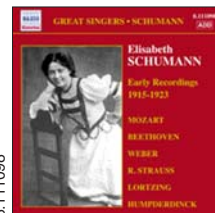
8.660183-84(2CDs)

**ROSSINI:
IL TURCO IN ITALIA
(THE TURK IN ITALY)**Chieti Marrucino Opera
Marzio Conti, cond.

8.559234

**LEVY:
CELLO CONCERTO
SYMPHONY NO. 3**Ireland National Symphony Orchestra
Takuo Yuasa, conductor

8.110333

**SCHIPA, TITO:
COMPLETE VICTOR
RECORDINGS, VOL. 2 (1924-1925)**Ave Maria, La bohème, Lucia
di Lammermoor, Rigoletto

8.111098

**SCHUMANN,
ELISABETH:
EARLY RECORDINGS (1915-1923)**Don Giovanni, Faust,
Le nozze di Figa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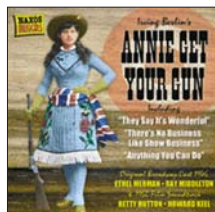
8.111023

**CHOPIN:
24 PRELUDES, OP. 28
BERCEUSE IN D FLAT MAJOR,
OP. 57 (1926-1950)**

Alfred Cortot, piano



8.120834

**SPIKE JONES:
SPIKING THE CLASSICS (1945-1950)**Carmen, Blue Danube, The
Nutcracker Suite, Flight of
the Bumble-Bee etc

8.120790

**IRVING BERLIN:
ANNIE GET YOUR GUN**Annie Get Your Gun
(Original Broadway Cast) (1946)
(Original Film) (1950)

8.120815

**ARMSTRONG, LOUIS:
JEEPERS CREEPERS (1938-1939)**Baby, Won't You Please
Come Home, Jeepers
Creepers, Lazybones

8.120819

**BASIE, COUNT:
COMING OUT PARTY (1940-1942)**Coming Out Party, Farewell
Blues, Feather Merchant, Fiesta
In Blue, How Long Bl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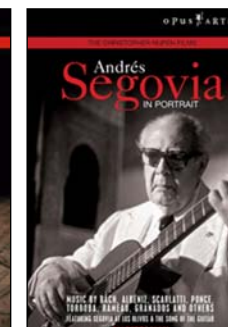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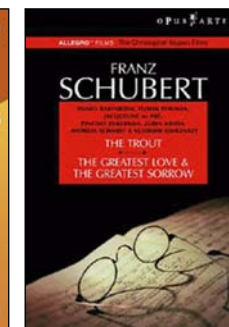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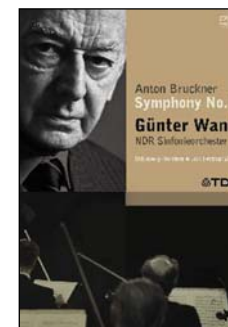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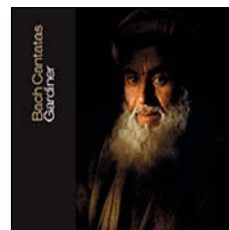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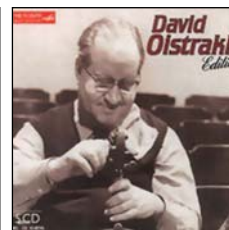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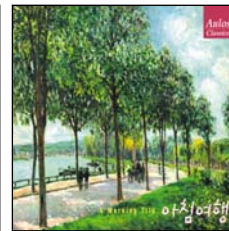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December 2005

‘연말 총정리... 올해의 주요 음반들’

- THE BEST ALBUMS OF THE 2005 -



2005년

연말 총정리...가장 기억에 남는 음반들

올해에 어떤 아이템들이 아울로스 미디어를 빛내줬을까? 2005년 한 해 동안 아울로스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팔려 나간 음반이나 그밖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장 기억에 남아 있는 음반들을 총 정리해 봤다. 수입음반, 라이센스 음반 그리고 DVD 타이틀을 통틀어 엄선했다.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이었던 음반이 지금까지도 그 뜨거운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어 의아하게 했던 음반도 있다.



AMC2-062

세상의 모든 음악 3집 - 저녁, 길모퉁이 카페...

따뜻한 세상을 향한 공감과 소통의 음악
KBS 1FM의 월드뮤직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음악>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식과 위로와 평화의 음악을 제공한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는 첫 곡인 <Nella Fantasia>에서 마지막 곡인 <Take me home>까지 이 한 장의 음반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처럼 기승전결을 갖는다. 위로와 휴식과 평화에 이르는 공감과 소통. 그것을 위해 제작진은 최선을 다한 음반을 선보인다는 자부심으로 3집을 세상에 내어놓는다.



Naxos 8.570120

청연 - Original Soundtrack

윤종찬 감독 작품 / 장진영, 김주혁 주연 / 유민, 한지민 / 니카무라 토오루 특별출연

2005년 최고의 화제작 영화 <청연> OST...
70여명의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에서 녹음한 이번 <청연>의 OST는 영화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스트링의 물결 위에 가득 채워지는 8개의 혼,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하프 음색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느샌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착각이 들 것이다.



AMC2-060

페도세예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오케스트라 걸작들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

러시아의 뜨거운 심장 페도세예프의 가슴 뭉클한 명연주.
LP시절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던 페도세예프의 러시아 오케스트라 걸작선을 두 장의 CD에 담았다. 심오한 음악성으로 슬라브 색감의 정서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렸던 페도세예프가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이 없는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과 70년대 중반, 80년대 초반에 남긴 음원들이다. *스비리도프의 <로망스> 수록



AMC2-056

아침여행

연둣빛, 잿빛 서정으로 가득한 아침 여행...
소리를 담지 않았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아침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푸른 산과 들 아침이슬과 산소바람을 만나게 해주고, 차가운 아침 경치와 대조되는 아늑한 실내공간을 느끼게 해주는 음악. 그리고 삶에 대한 파스하고 애뜻한 사색을 담았습니다.



Naxos 8.557248

BUXTEHUDE: 7 Sonatas, BuxWV 252-258

John Holloway, violin / Jaap ter Linden, viola da gamba /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이 작품들에 대한 더 뛰어난 레코딩을 상상하기 힘들다' (아메리칸 레코드 가이드) '
북스테후데는 일곱 개의 소나타 Op.1을 통해 서정적인 섬세함이나 슬픔, 그리고 드라마틱한 감정들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해내는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할러웨이, 린덴, 모르텐센이라는 황금멤버들의 완벽한 앙상블이 음반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Naxos 8.557795

BOCCHERINI: 3 Cello Sonatas / FACCO: Balletto in C major / PORRETTI: Cello Sonata in D major

Josep Bassal, cello / Wolfgang Lehner, cello

두 대의 첼로가 주고받는 그윽한 대화.
첼로를 위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보케리니. 이번 음반에 수록된 3편의 소나타들은 별도의 반주 없이 첼로 이중주만을 위한 독특한 편성이 우선 눈길을 끈다. 두 대의 첼로가 다정하게 주고받는 농밀한 저음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든다. 더불어 당대의 스페인 작곡가들인 파코, 포레티, 비달과 같은 생소한 이름들의 아기자기한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Naxos 8.557595

HUMMEL: Concertos Concerto for Piano and Violin in G major, Op. 17 / Violin Concerto(completed by G. Rose)
Polina Osetinskaya, pf / Alexander Trostianski, vn / Russian Philharmonic Orchestra / Gregory Rose

복권되기에 마땅할 흠멜의 두 걸작 협주곡들.
한동안 부당하게 잊혀져 있던 흠멜의 작품들이 최근 다시금 빛을 보고 있다. 음반에 수록된 두 협주곡 역시 마땅히 재평가를 받아야 할 매력적인 작품들. 작곡가의 유일한 바이올린협주곡은 양단악장의 뛰어난 개인기와 가운데 악장의 서정성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작품. 두 독주자의 화려한 경쟁이 눈부신 이중협주곡 역시 훌륭하다.



MDG 603 1253

Onslow: Chamber Music Vol.2 / String Quintet Op.34 & 35

Quintett Memento Musicale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였던 조르주 온슬로우의 실내악곡집 2탄. 온슬로우는 런던에서 두석과 함께 공부하였고, 파리에서 안톤 라이하에게서 작곡을 배웠다. 현악사중주를 35곡, 현악오중주를 34곡이나 완성했던 그였던만큼 이 음반에 실린 곡은 그야말로 실내악 대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MDG 312 1323

Bach / Busoni - Liszt

Busoni: Nach der Wendung / ElegiesLiszt: Petrarca Sonette Nos.4-6, Resignazione

Bach: Goldberg Variation (arr.Busoni)

Claudius Tanski, Klavier

부조니가 편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 후기낭만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비르투오조였던 부조니. 그의 음악적 뿌리는 바흐를 향해있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바흐 작품들의 편곡들 중에서도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성과는 탁월하다. 부조니 스페셜리스트 탄스키의 발군의 연주는 수록곡들의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



MEL CD 10 00748

Liszt: 12 Etudes d'execution transcendente

Lazar Berman,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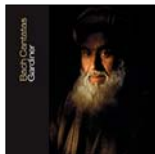
카라얀이 경탄해마지 않았던 바로 그 전설적인 연주 베르만의 초절기교연습곡.
2005년 2월 6일 74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던 라자르 베르만. 대 피아니스트 길레스가 '나와 리히터보다도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극찬해마지 않았던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수차례에 걸친 내한공연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었다. 이 음반은 연주자의 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59년과 61년의 기록으로 숨이 막힐 듯한 건반위의 아크로바틱을 경험하게 된다.



MEL CD 10 00745(5CDs)

David Oistrakh Edition

CD 1 Tchaikovsky: Violin concerto / Sibelius: Violin concerto & 2 Humoresques
CD 2 Brahms: Violin concerto / Dvorak: Violin concerto
CD 3 Vitali: Ciacona etc
CD 4 Brahms: Violin Sonatas Nos.2 & 3 / Franck: Violin Sonata
CD 5 Bartok: Violin Sonata No.1 / Shostakovich: Violin Son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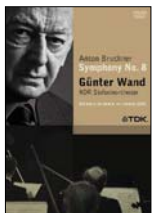


SDG 101(2CDs)

Solists : Gillian Keith & Joanne Lunn, sop / Wilkete Brummjelstroete, alt / Paul Agnew, te / Dietrich Henschel, bass

Cantatas for the Feast of St. John the Baptist (CD1)
BWV 167 - Ihr Menschen, ruhmte Gottes Liebe(너희들 인간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BWV 7 - Christ unser Herr zum Jordan kam(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 오셨도다)
BWV 30 - Freue dich, erloste Schar(기뻐하라 구원받은 무리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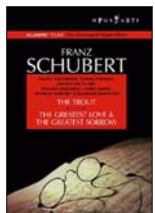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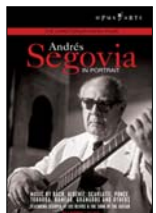
Cantatas for the 1st Sunday after Trinity (CD2)
BWV 75 - Die Elenden sollen essen(가난한 자는 배불리 먹으리라)
BWV 20 - O Ewigkeit, du Donnerwort(오 영원이여 우뢰같은 목소리여)
BWV 39 - Brich dem Hungrigen dein Brot(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어라)



TDK DVUS-COWAND3



Arthaus 101 245

BBC/Opus Arte
OA CN0903 DBBC/Opus Arte
OA CN0901 D

– 나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249

BUXTEHUDE: 7 Sonatas, BuxWV 259-265

John Holloway, violin / Jaap ter Linden, viola da gamba /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이 작품들에 대한 이보다 더 뛰어난 연주를 상상할 수 없다. -아메리칸 레코드 가이드-
2005년 나소스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소나타 Op.1에 이어서 홀로웨이의 두 번째 북스테후데 음반이 등장하였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고음악계의 실력과 연주자들인 얍 테르 린덴과 울릭 모르텐센이 호흡을 맞추었다.



Naxos 8.557215

VIVALDI: Chamber Concertos

Laszlo Kecskemeti, recorder / Laszlo Hadady, oboe / Attila Falvay, violin / Gyorgy Olajos, bassoon / Gyorgy Kertesz, cello / Borbala Dobozy, harpsichord

헝가리 연주자들이 들려주는 아담하고도 생기발랄한 비발디.리코더를 독주악기로 내세운 비발디의 체임버 콘체르토 7곡을 모았다. 사계의 겨울 2악장의 모티브가 된 RV94를 비롯하여 실내악의 농밀함과 협주곡의 화려함을 엮은 작곡가의 재능이 눈부시다.



Naxos 8.557621

BACH, J.S. : Alto Cantatas Vol.1(BWV 53, 54, 169, 170, 200)

Marianne Beate Kielland, ms / Cologne Chamber Orchestra / Helmut Muller-Bruhl, cond.

연주 9점, 녹음 10점. -독일 Klassik Heute-
미사 B단조로 큰 성공을 거둔 필러 브뤼의 두 번째 바흐 종교작품집. 중성적인 저음이 매력적인 노르웨이의 기대주 키엘란트를 독주자로 내세워 바흐의 알토를 위한 칸타타들을 녹음하였다.



Naxos 8.557568

SCHUBERT: Lied Edition 20 – Poets of Sensibility, Vol.3

Wolfgang Holzmaier, baritone / Ulrich Eisenlohr, piano

세계 최정상급 바리톤 볼프강 홀츠마이어의 나소스 데뷔음반.
'죽음과 소녀', '달에게', '나이트게일의 죽음', '저녁노래' 등 슈베르트의 주옥같은 가곡들 중에서도 가장 감수성이 넘치는 작품들을 아이젠로어가 연주하는 포르테피아노의 아담한 반주와 함께 담았다.



Naxos 8.557836

HUMMEL: Fantasies (Complete)

Madoka Inui, piano

최근 들어 낭만음악의 씨를 뿌렸던 훔멜의 작품들이 다시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의 환상곡들은 쇼팽과 슈만의 그것을 예견하듯 자유분방하고 농밀한 낭만성으로 가득하다. 빈에서 실내악전문연주자로 활약 중인 일본인 피아니스트 마도카 이누이가 섬세하고도 단정한 터치로 훔멜의 작품들을 연주하였다. 환상곡 Op.123.은 최초 녹음이다.



Naxos 8.557443

BUSONI: Music for 2 Pianos Duetтино Concertante, Fantasia Contrappuntistica, Fantasy for a Barrel-Organ, Improvisation on the Bach Chorale BWV 517

Allan Schiller, piano / John Humphreys, piano

위대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던 부조니. 연주자로서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아노에 최적화된 명곡들을 다수 남겼다. 음반의 수록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들은 모두 모차르트와 바흐의 작품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Naxos 8.557747

Concerto for 4 horns
SCHUMANN: Konzertstück, Op. 86 / HAYDN: symphony No. 31, 'Horn Signal'

American Horn Quartet / Sinfonia Varsovia / Dariusz Wisniewski, conductor

네 대의 혼이 만들어내는 박력넘치는 음악들.네 대의 혼이 주인공이 되는 슈만, 헨델, 텔레만, 하이든의 색다른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미국 출신의 정상급 혼 연주자들로 구성된 아메리칸 혼 사중주단의 뛰어난 명인기와 앙상블을 만끽할 수 있다.



Naxos 8.557375

WILLAN: Organ Works(Chorale Prelude on a Melody by Gibbons, Introduction, Passacaglia and Fugue, Passacaglia and Fugue No. 2, Prelude and Fugue in C minor)

Patrick Wedd, organ

힐리 월란은 런던에서 태어나 청년기에 캐나다로 이주했던 작곡가로, 오르간 연주와 작곡 양분야에서 이 나라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바흐의 전통에 입각한 고전적인 양식미와 로맨틱한 정서가 결합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Naxos 8.557496

PLEYEL: String Quartets, Op. 2, Nos. 1-3

Enso Quartet

하이든의 제자가 들려주는 고전 실내악의 모미하이든의 제자였던 프라이어엘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둔 정도로 당대에 명망높았던 작곡가였다. 그의 현악사중주는 소년 모차르트를 감탄케했을 정도였는데, 하이든의 작품에 비견될만큼 해맑고 싱그러운 매력이 음반 전체에 걸쳐 가득하다. 미국의 젊은 기대주인 엔조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521

SCHOENBERG: A Cappella Choruses / String Quartet No.2 / Suite in G major

Jennifer Welch-Babidge, soprano / Simon Joly Singers / Fred Sherry Quartet / Twentieth Century Classics Ensemble / Robert Craft, conductor

작곡가의 작품들 중에서 조성체계에 입각한 작품들만으로 음반을 구성하였다. 독일 민요에 기초한 여섯 곡의 무반주합창곡과 미국에서의 첫 작품인 현을 위한 모음곡은 무조음악의 창시자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선율적인 작품들이다. 작곡가의 직계제자인 로버트 크래프트가 지휘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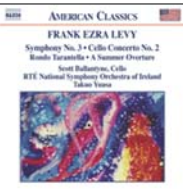


Naxos 8.557693

MAYUZUMI: Bugaku / Mandala Symphony / Rumba Rhapsody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 Takuo Yuasa, conductor

토시로 마유즈미는 다케미즈와 더불어 전후 일본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다. 수곡곡들은 이 작곡가가 필요한 다양한 음악적 소재들을 보여준다. 일본 궁정춤곡에 기초한 부가쿠, 티벳 불교의 영향을 담은 만달라교향곡, 이와 반대로 롬바 랩소디와 심포닉 무드는 서구지향적인 또 다른 일면을 드러낸다.



Naxos 8.559234

LEVY: Cello Concerto / Symphony No.3 / A Summer Overture

Ireland National Symphony Orchestra / Takuo Yuasa, conductor

프랭크 레비는 스위스 출신의 명 작곡가 에른스트 레비의 아들이다. 첼리스트로 활약하였고, 오페라, 교향곡을 비롯한 대작들을 다수 남기는 등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 작곡가 스스로 고백하는 바르톱, 야나체, 스트라빈스키의 영향을 그의 관현악 작품들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Naxos 8.660183-84(2CDs)

ROSSINI: Il Turco in Italia (The Turk in Italy)

Natale de Carolis, bass / Myrto Papatnasiu, sop / Massimiliano Gagliardo, bar / Amedeo Moretti, te / Chieti Marrucino Opera / Marzio Conti, cond.

로시니의 오페라 '터키의 이탈리아인'은 앙상블의 적극적인 활용면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나폴리를 방문한 터키의 귀인이 낯선 이국땅에서 만들어내는 에피소드들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라스칼라의 새로운 주역인 베이스 데 카롤리스를 필두로 실력과 젊은 가수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Naxos Historical & Legend Jazz



Naxos 8.110333

SCHIPA, Tito: Complete Victor Recordings, Vol.2 (1924~1925)

Ave Maria, L'elisir d'amore, Act II: Una furtiva lagrima, La boheme, Act IV: Oh! Dio, Mimi!, Liebestraume: No. 3, Lucia di Lammermoor, Act I: Verranno a te, Martha, Act III: M'appari, Rigoletto, Act III: La donna e mobile, etc

리리코 레지예로의 대명사 티토 스킵파.그의 감미로운 미성이 빛을 발하는 오페라 아리아와 이탈리아 민요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그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은 두 번의 녹음 테이크를 모두 수록하였다. 또한 자신의 창작곡 아베 마리아를 들을 수 있다.



Naxos 8.111098

SCHUMANN, Elisabeth: Early Recordings (1915~1923)

Die Entführung aus dem Serail: Welche Wonne, welche Lust, Don Giovanni: Schmale, schmale, lieber Junge, Exultate, Jubilate, Faust: Jewel Song, Le nozze di Figaro: Endlich naht sich die Stunde, etc

20세기초를 대표하였던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만.전성기였던 20년 전후의 녹음들을 모았다. 장기였던 모차르트를 비롯하여 베버, 구노, 훔퍼딩크의 친숙한 아리아들을 이 위대한 가수의 음성으로 만난다.



Naxos 8.111023

CHOPIN: 24 Preludes, Op. 28 / 3 Impromptus / Berceuse in D flat major, Op. 57 (1926~1950)

Alfred Cortot, piano

낙소스는 코르토가 남긴 78회전반들을 다섯 장의 CD에 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첫 성과물이 바로 이 음반. 거장이 남긴 쇼팽의 전주곡(1926년녹음)과 즉흥곡(1933년녹음)을 담았다. 녹음시기를 초월하는 마크 오버트손의 놀라운 복각솜씨가 다시금 빛난다.



Naxos 8.111010

LEHAR: Le comte de Luxembourg / Frederique / Giuditta (excerpts)

Lina Dachary, soprano / Claudine Collart, soprano / Georgette Despanellys, vocals / Henri Legay, tenor / Pierre Sauget, vocals / Jacques Gillet, vocals / ORTF Lyric Orchestra / Adolphe Sibert, conductor

2,30년대 빈의 라디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아돌프 지베르트는 한 마디로 오스트리아의 아서 피들러와 같은 존재였다. 레하르, 칼만 등의 오페레타들을 즐겨 연주하면서 빈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가 들려주는 정통 빈 오페레타의 즐거움.



Naxos 8.120834

Spike Jones: Spiking The Classics (1945~1950)

None But The Lonely Heart, Carmen, Rhapsody From Hunger(y), The Beautiful, Blue Danube, The Nutcracker Suite, Flight of the Bumble-Bee, William Tell Overture etc

클래식계의 '신나는 이박사!!!' 스파이크 존스클래식 명곡을 소재로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코미디를 연출했던 음악계의 악동 스파이크 존스. 너무나 기발한 그의 음악적 재치를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포복절도의 코미디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형과 카르멘을 만나보시라.



Naxos 8.120790

Irving BERLIN: Annie Get Your Gun(Original Broadway Cast) (1946) / (Original Film) (1950)

여류 명사수 애니 오클리의 생애를 뮤지컬로 만든 'Annie get your gun'은 어빙 베를린의 출세작과도 같은 작품이다. "You Can't Get a Man with a Gun", "Doin' What Comes Natur'ly", "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등 지금도 사랑받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명곡들이 담겨있다. 1946년 오리지널 캐스팅과 1950년 영화 출연진의 노래를 함께 수록.



Naxos 8.120815

ARMSTRONG, Louis: Jeepers Creepers (1938~1939)

Ain't Misbehavin' / Baby, Won't You Please Come Home / Confessin' / Elder Eatmore's Sermon On Generosity / Hear Me Talkin' To Ya / I Can't Give You Anything But Love / I've Got A Pocketful Of Dreams / Jeepers Creepers / Jonah And The Whale / Lazybones / Love Walked In / Our Monday Date / Rockin' Chair / Save It, Pretty Mama / Savoy Blues / Shadrack / West End Blues / What Is This Thing Called Swing /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axos 8.120819

BASIE, Count: Coming Out Party (1940~1942)

9:20 Special / Basie Blues / Bugle Blues / Cafe Society Blues / Coming Out Party / Farewell Blues / Feather Merchant / Fiesta In Blue / Goin' To Chicago Blues / Harvard Blues / How Long Blues / I'm Gonna Move To The Outskirts Of Town / King Joe, Parts 1 & 2 / Royal Garden Blues / St Louis Blues / Sugar Blues / The World Is Mad, Parts 1 & 2 / Way Back Blues

KKV New Releases



FXCD 299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연주: 빈테르마네

감동의 극치! 크리스마스 이브 퓨전 콘서트
재즈와 민요를 적절히 섞은 듯한 음악을 들려주는 빈테르마네란 악단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음반이다. 여성 보컬을 맡은 안네 그라비르가 민요형식으로 편곡된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아주 편안하게 불러주고, 반주는 피아노, 색소폰 등이 맡았다. 피아노는 부드럽고 색소폰은 아주 유려하다. 이들 트리오는 1997년부터 매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연 것으로도 북유럽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음반에 그들이 이제까지의 콘서트에서 즐겨 부르던 것들 중 핵심 레퍼토리들을 골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란 타이틀로 담았다. 첫 트랙의 '고요한 밤'에서 매혹적인 연주와 가창에 단번에 매료되지만, 그 감동은 11개 트랙까지 변함없이 이어진다. '매년 그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기쁘다네', '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간에', '내 마음은 항상 예수와 함께 있네', '신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네' 등 노래들이 하나같이 아름답다.



FXCD 300

어둠속의 빛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 노래: 미아 군데르센&비아르테 헬메란드

듀엣으로 전한 부드러운 크리스마스 메시지
평화와 용서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사랑의 노래를 선사하고 있는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이번에는 군데르센과 헬메란드라는 두 명의 남녀 듀엣을 내세워 포근하고 인상적인 음반을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축제의 분위기가 아주 부드럽게 연출되었는데, 유명한 '고요한 밤' 외에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례자', '아름다운 구세주', '양을 기르신 주님'이 나오고,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의 지휘자인 토레 아스가 쓴 새 크리스마스 노래, 다른 노르웨이 아티스트가 가 쓴 '눈 속의 천사'란 노래, 영국의 옛 크리스마스 캐럴인 '내 가슴안의 천국', 그리고 한스 올라브 뢰르크와 토레 아스가 쓴 '마리아의 노래'도 실렸다. 시즌 곡이나 새 창작곡과 편곡물 모두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레퍼토리들이다. 피아노, 기타, 드럼, 그리고 13명의 현악기 연주자들도 아주 편안하게 노래를 반주해준다.

Naxos Best 20



Naxos
8.557563~64(2CDs)

J.S. BACH: Sonata & Partitas for solo Violin BWV 1001-1006

Jaap Schroder, Baroque Violin

레온하르트, 빌스마, 브뤼헨과 함께 플랑드르 4인방을 구성하였던 압 슈뢰더. 스미소니안 인스티튜트에서 발매되어 극소수의 마니아들을 열광케했던 그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이제 낙소스에서 만나게 된다.

이 뛰어난 연주를 많은 이들 사이에서 언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쿠이켄 보다 다소 느리나 연주는 한결 신중하다. -www.jsbach.org-



Naxos 8.557770

TALLIS: Missa Salve intemerata / Salve intemerata / Spem in alium / With all our heart

Oxford Camerata / Jeremy Summerly, conductor

낙소스 이달의 CD.

탈리스의 탄생 500주년 기념음반. 폴리포니의 정수를 보여주는 40성부를 위한 모테트 '스펙 인 알리움'을 중심으로 작곡가의 라틴어 및 영어 텍스트 종교합창곡들을 담았다.



Naxos 8.557610

VIRTUOSO TIMPANI CONCERTOS

Concerto for Six Timpani / Marche de timballes / Symphony for 2 horns, timpani / Symphony No. 99 / Symphony with eight obligato timpani

Alexander Peter, timpani / Dresden Philharmonic Chamber Orchestra

팀파니를 위한 18세기 작곡가들의 재미있는 작품들.

18세기 무렵에는 혼자서 10대에서 16대까지의 팀파니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놀라운 재주를 보여주는 팀파니주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의 눈부신 활약에 기초하여 여러 작곡가들이 팀파니를 위한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남겼는데 그 일부를 이 음반에서 만나볼 수 있다.



Naxos 8.110787

BEETHOVEN / RACHMANINOV:

Piano Concerto No.5 'Emperor' / Piano Concerto No.3

Vladimir Horowitz, pf / Fritz Reiner, cond. / RCA Victor symphony

호로보츠와 라이너의 만남, 그리고 이들 황금 콤비가 연주하는 베토벤과 라흐마니노프 가장 인기 높은 두 협주곡은 호로비츠와 라이너의 뛰어난 연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행운이다. 라흐마니노프는 1951년, 베토벤은 1952년의 녹음으로 한창 물오른 호로비츠의 명인기가 눈부시다.



Naxos 8.557782

Various Composer: Music for Flute & Percussion

Marc Grauwls, fl / Marie Josee Simard, perc

내한 공연의 감동을 고스란히 이어줄 음반.

8월 19일 내한공연을 가졌던 벨기에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의 신보. 피아졸라, 라비 샹가, 패르트, 케이크 아베 등의 형형색색의 작품들을 플루트와 퍼커션의 색다른 이중주로 감상할 수 있다.



Naxos 8.110307

Brahms & Dvorak: Piano Quintets

Clifford Curzon, pf / Budapest Quartet

클리포드 커즌과 부다페스트 사중주단의 완벽한 만남.

낙소스의 두 번째 커즌 음반. 부다페스트 사중주단과 협연한 브람스(1950년)과 드보르작(1953년)의 피아노 오중주를 담았다.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은 역사적인 명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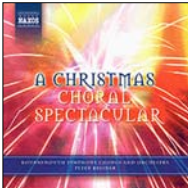
Naxos 8.557429

Brahms: Symphony No.2 & Hungarian Dances

London Philharmonic / Marin Alsop

알소프의 브람스 교향곡 시리즈 2탄.

본머스에서 이어 볼티모어 심포니의 음악감독을 맡으며 대서양 양단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마린 알소프. 큰 인기를 얻었던 교향곡 1번에 이어 그녀의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의 두 번째 음반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여백을 메우는 8편의 헝가리 춤곡도 알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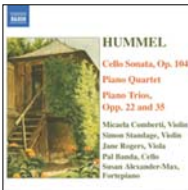
Naxos 8.557585

A Christmas Choral Spectacular

Bournemouth Symphony & Chorus / Peter Breiner

SACD로 큰 인기를 누렸던 음반. 일반 CD로 다시 등장하다.

낙소스의 재간동이 편곡자 패터 브라이너가 고급의 유명한 캐롤들을 화려하게 편곡한 이 음반은 이미 SACD 및 DVD-Audio로 큰 인기를 누렸던 베스트셀러이다. 다가오는 성탄시즌에 가장 어울리는 음반이 될 것이다.



Naxos 8.557694

Hummel: Cello Sonata, Piano Quartet etc

Susan Alexander-Max, fp / Micaela Comberti & Simon Standage, vn / Jane Rogers, va / Pal Banda, vc

피아노사중주의 화려한 피아노 파트는 비르투오조 출신 작곡가의 이력을 말해주며, 피아노트리오와 첼로소나타의 우아한 선율은 그가 당대 최고의 인기작곡가였음을 증명한다. 잉글리시 콘서트 악장 출신들인 정상급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사이먼 스탠데이지와 마카엘라 콤베르티가 참여하였다.



Naxos 8.557249

BUXTEHUDE: 7 Sonatas, BuxWV 259-265

John Holloway, violin / Jaap ter Linden, viola da gamba /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이 작품들에 대한 이보다 더 뛰어난 연주를 상상할 수 없다. -아메리칸 레코드 가이드-

2005년 낙소스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소나타 Op.1에 이어서 홀로웨이의 두 번째 북스테후데 음반이 등장하였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고음악계의 실력과 연주자들인 얍 테르 린덴과 올릭 모르텐센이 호흡을 맞추었다.



Naxos 8.557595

HUMMEL: Concertos Concerto for Piano and Violin in G major, Op. 17 / Violin Concerto(completed by G. Rose)

Polina Osetinskaya, pf / Alexander Trostianski, vn / Russian Philharmonic Orchestra / Gregory Rose

복권되기에 마땅할 훔멜의 두 걸작 협주곡들.

한동안 부당하게 잊혀져 있던 훔멜의 작품들이 최근 다시금 빛을 보고 있다. 음반에 수록된 두 협주곡 역시 마땅히 재평가를 받아야할 매력적인 작품들. 작곡가의 유일한 바이올린협주곡은 양단악장의 뛰어난 개인기와 가운데 악장의 서정성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작품. 두 독주자의 화려한 경쟁이 눈부신 이중협주곡 역시 훌륭하다.



Naxos 8.557795

BOCCHERINI: 3 Cello Sonatas / FACCIO: Balletto in C major / PORRETTI: Cello Sonata in D major

Josep Bassal, cello / Wolfgang Lehner, cello

두 대의 첼로가 주고받는 그윽한 대화.

첼로를 위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보케리니. 이번 음반에 수록된 3편의 소나타들은 별도의 반주 없이 첼로 이중주만을 위한 독특한 편성이 우선 눈길을 끈다. 두 대의 첼로가 다정하게 주고받는 농밀한 저음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든다. 더불어 당대의 스페인 작곡가들인 파코, 포레티, 비달과 같은 생소한 이름들의 아기자기한 작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Naxos 8.557248

BUXTEHUDE: 7 Sonatas, BuxWV 252–258
Sonata No. 1 in F major, Op. 1 / No. 2 in G major / No. 3 in A minor /
No. 4 in B flat major / No. 5 in C major / No. 6 in D minor / No. 7 in E minor

John Holloway, violin / Jaap ter Linden, viola da gamba /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이 작품들에 대한 더 뛰어난 레코딩을 상상하기 힘들다’ (아메리칸 레코드 가이드) ‘
북스테후데는 일곱 개의 소나타 Op.1을 통해 서정적인 섬세함이나 슬픔, 그리고 드라마틱한 감정들을 능수능
란하게 표현해내는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할러웨이, 린덴, 모르텐센이라는 황금멤버들의 완벽한
앙상블이 음반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Naxos 8.557380-81 (2CDs)

HAYDN: Die Schöpfung (The Creation), Hob.XXI:2

임선혜, soprano / Jan Kobow, tenor / Hanno Müller-Brachmann, bass-baritone /
Christine Wehler, alto / Cologne Vocal Ensemble / Capella Augustina / Andreas Spering, cond

유럽 현지에서 차세대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소프라노 임선혜의 청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무지카 안티쿠아 쾰른의 하프시코드 주자 출신인 안드레아스 슈페링(다스 노이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크리스토퍼 슈페링의 동생)이 지휘를 맡았다.



Naxos 8.557283

BRIDGE: Phantasy, Piano Quartet in F sharp minor /
String Quartet No. 2 in G minor / String Quartet No. 4

Martin Roscoe, piano / Maggini Quartet

실내악 작품으로 자신의 명성을 쌓아갔던 현대 영국의 작곡가 프랑크 브리지의 현악 사중주 2번과 4번, 그리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위한 환상곡을 수록하고 있다. 그라모폰상 수상에 빛나는 최고의 실내악단
마기니 현악 사중주단이 연주했고, 피아노 연주는 마틴 로스코가 맡았다.



Naxos 8.557413

BUXTEHUDE: Capricciosa (La) / Suite in G Minor

Glen Wilson, harpsichord

북스테후데의 토카타, 코랄 파르티타, 모음곡 등을 모은 하프시코드 작품집이다. 특히 '카프리치오사'라는 곡은
베르가마스가 주제에 의한 32개의 변주곡 작품인데, 그 기념비적인 스케일의 화려한 테크닉의 작품은 북스테
후데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할 만하다.



Naxos 8.557606

THE ART OF THE VIOLA

Paul Hindemith : Sonata for Viola and Piano, Op.11, No.4 /
Beethoven : Duo for ciola and cello in E flat major 'with two Fyeglasses', WoO 32 /
Schumann : Marchenerzahlungen for Clarinet, Ciola and Piano Op.132

Heinrich Koll, Viola / Madoka Inui, Piano / Peter Schmid, Clarinet / Alexandra Koll, Violin /
Milan Karanovic, Cello

빈에서 태어나 빈 음악원에서 공부한 명 비올리스트이며 1976년부터 80년까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비올리스트였던 하인리히 콜이 들려주는 비올라 음악의 진수. 힌데미트의 비올라 소나타, 베토벤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외 슈만, 헨델의 파사칼리아, 브리튼의 매혹적인 비올라 음악들이 가득 실려 있다.



Naxos 8.557428

BRAHMS: Academic Festival Overture Op.80 /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 Tragic Overture Op.81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 Marin Alsop, conductor

번스타인의 교향곡 등 일련의 녹음들을 통해 '우먼 파워'를 절감하게 했던 영국의 탁월한 여성 지휘자 마린 알소프의
희심작이다. 육중하고 중후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운용하며 브람스의 영혼에 깊이 파고든 연주를 펼쳐준다.
특히 아련한 2악장이 무척 아름답다. 함께 수록된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 서곡도 아주 훌륭하다.



Naxos 8.555996

YSAYE: Solo Violin Sonatas, Op. 27

Ilya Kaler, violin

벨기에의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작곡가인 이자이가 남긴 바이올린 소나타 Op.27의 6곡을 담은 음반. 무반주 바
이올린 소나타는 당대 최고의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사람이었던 그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에
속한다. 기교적 완성이나 음악적 표현력을 기르려는 연주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명곡. 요제프 시게티를 위해 작
곡한 소나타 1번도 훌륭하고, “발라드”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3번도 매우 아름답다.



Naxos 8.557146

BLISS: Piano Concerto / Piano Sonata

Peter Donohoe & Martin Roscoe, piano / Royal Scottish National Orch. /
David Lloyd-Jones, conductor

19세기 말엽에 태어나 20세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작곡가 아서 블리스의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 소나타를 신
고 있는 음반. B플랫 장조의 피아노 협주곡 외에 두 대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도 실고 있다. 피
아노 협주곡은 좀처럼 듣기 어려운 작품인데다 더군다나 뛰어난 피터 도노호의 피아노 연주와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더 이상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다.

Melodiya Best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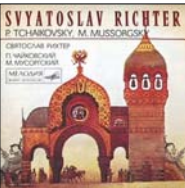


MEL CD 10 00748

Liszt: 12 Etudes d'execution transcendente

Lazar Berman, piano

카라얀이 경탄해마지 않았던 바로 그 전설적인 연주 베르만의 초절기교연습곡.
2005년 2월 6일 74세의 일기로 삶을 마감했던 라자르 베르만. 대 피아니스트 길레스가 ‘나와 리히터보다도 더
훌륭한 피아니스트’라고 극찬해마지 않았던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수차례에 걸친 내한공연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었다. 이 음반은 연주자의 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59년과 61년의 기록으로
숨이 막힐 듯한 건반위의 아크로바틱을 경험하게 된다.



MEL CD 10 00515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 Tchaikovsky: Grand Sonata for Piano

Svyatoslav Richter, piano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가 들려주는 러시아 피아니즘의 백미.
소비에트 피아니스트의 대명사인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가 서방에 알려지기 직전에 남긴 주목할만한 레코딩.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소나타는 1956년의 녹음이고,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1958년
의 녹음. 러시아 피아노음악을 대표하는 두 걸작에 대한 가장 신뢰할만한 해석을 이 음반을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MEL CD 10 00745 (5CDs)

David Oistrakh Edition

- CD 1 Tchaikovsky: Violin concerto / Sibelius: Violin concerto & 2 Humoresques
- CD 2 Brahms: Violin concerto / Dvorak: Violin concerto
- CD 3 Vitali: Ciacona etc
- CD 4 Brahms: Violin Sonatas Nos.2 & 3 / Franck: Violin Sonata
- CD 5 Bartok: Violin Sonata No.1 / Shostakovich: Violin Sonata



MEL CD 10 00583

오이스트라흐 / 로스트로포비치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오이스트라흐/콘드라신/USSR 심포니
로코코변주곡: 로스트로포비치/로제스트벤스키/레닌그라드 필하모닉

구 소련을 대표하는 현악기의 두 거장이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협주곡은 박스 에디션의 연주와 달리 콘드라신과 협연한 1957년의 녹음이고,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한 로코코변주곡은 로제스트벤스키와 협연한 1963년의 녹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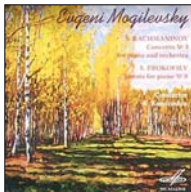


MEL CD 10 00732

Sviatoslav Richter Edition Vol.2

Beethoven album Piano Sonata No.8 'Pathetique' / 8 Bagatelles / Piano Sonata No.23 'Appassionata'

Choral Fantasy with USSR State Russian Chorus / All-union radion large symphony / Kurt Sander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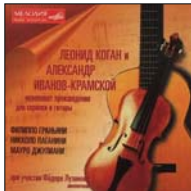


MEL CD 10 00656

Evgeni Mogilevsky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3번 : 콘드라신, 지휘 / 모스크바 필하모닉(1964년 녹음)
프로코피예프 소나타8번 (1977년 녹음)

네이గా이우스가 길러낸 최후의 명 피아니스트 에프게니 모길레프스키. 1964년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음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모길레프스키.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번은 바로 그 해에 완성된 것으로 이 피아니스트의 대표반으로 평가된다. 리히터는 왜 라흐마니노프의 3번 협주곡을 녹음하지 않는냐라는 질문에 다른 피아니스트들의 연주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모길레프스키의 이 음반이다.



MEL CD 10 00655

Music For Violin & Guitar

레오니드 코간, Violin / 알렉산더 이바노프-크람스코이, guitar

코간의 섬세함으로 빛어낸 아름다운 보석들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주옥같은 음악들을 다름 아닌 레오니드 코간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큰 행복이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파가니니와 줄리아니의 아름다운 소품들은 물론, 고전시대의 이탈리아 작곡가 필리포 그라냐니의 작품들 역시 달콤한 선율들로 가득하다.



MEL CD 10 00733

Sviatoslav Richter Edition Vo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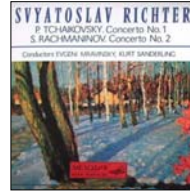
Schumann Album Fantasiestucke Op.12 / Humoreske Op.20 / Novelletten Op.21



MEL CD 10 00734

Sviatoslav Richter Edition Vol.4

Schubert: Moments musicaux, Impromptu in Ab / Chopin: Etude Op.10-3, 25-5, Polonaise Op.26-1 / Franck: Prelude, choral & fugue
Bartok: 15 Hungarian peasant songs



MEL CD 10 00993

S. 리히터의 러시아 피아노협주곡 걸작선

차이코프스키 협주곡1번: 리히터 / 므라빈스키 /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라흐마니노프 협주곡2번: 리히터 / 잔데링 /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러시아 피아노스쿨의 대명사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가 연주한 가장 인기 높은 러시아 피아노협주곡 둘을 함께 모았다.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당시의 레닌그라드 필과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는 므라빈스키, 라흐마니노프는 당시 악단의 부지휘자로 있던 쿠르트 잔데링과 호흡을 맞추었다. 각각 1958년과 1959년 녹음. 이후 DG를 통해 남긴 두 연주를 능가하는 거장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는 연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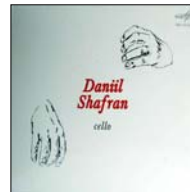
MEL CD 10 00735

Sviatoslav Richter Edition Vol.5

Romantic Concerto Album Chopin: Piano Concerto No.2 with USSR State Symphony / Evgeni Svetlanov

Saint-Saens: Piano Concerto No.5 with Moscow Youth Orchestra / Kirill Kondrashin

Franck: Symphonic poem for Piano & Orchestra with Moscow Youth Orchestra/Kirill Kondrashin



MEL CD 10 00710

Daniil Shafran Box Set (5CDs)

CD 1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슈만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드뷔시 첼로소나타
CD 2 쇼팽 첼로소나타, 라흐마니노프 첼로소나타
CD 3 브람스 첼로소나타 1,2번, 친카체 첼로 소품집
CD 4 스트라빈스키 폴카넬라 모음곡, 프로코피예프 첼로소나타, 쇼스타코비치 비올라소나타(첼로편곡)
CD 5 보케리니 첼로협주곡 Bb장조, 하이든 첼로협주곡 2번, 차이코프스키 로코코변주곡



MEL CD 10 00731

Sviatoslav Richter Edition Vol.1

J.S. Bach Album English Suite No. 3, Concerto for Piano & orchestra BWV1052 with USSR State Symphony / Kurt Sanderling

Concerto for Piano & orchestra BWV1061 with Moscow Chamber / Rudolf Barshai



MEL CD 10 00070

Mozart: Violin Sonata KV 378 & 379

올렉 카간, Violin /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Piano

올렉 카간과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의 만남
트레차코프와 함께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의 넘버 3를 다뤘었던 올렉 카간. 명 첼리스트 나탈리 구트만의 남편으로, 리히터와의 돈독한 파트너십으로 유명했던 이 연주자는 자신의 풍부한 음악성을 맘껏 펼쳐보기도 전에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차르트 바이올린소나타를 담은 이 음반은 자신의 재능을 높이 샀던 리히터와 호흡을 맞춘 명연으로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음반이 발매되었으나, 오리지널은 멜로디야의 바로 이 음반이다.



MEL CD 10 00095

쇼스타코비치:

Viloin Sonata Op.134 - 올렉 카간, violin /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piano
Viola Sonata Op.147 - 유리 바쉬메트, viola /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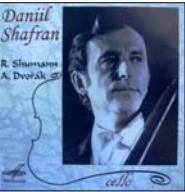
카간, 바쉬메트, 리히터가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소나타는 올렉 카간과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콤비의 돈독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명반이다. 작곡가의 또다른 명작인 비올라소나타는 우리 시대 최고의 비올리스트인 유리 바쉬메트가 리히터와 호흡을 맞춘 것이다.



MEL CD 10 00792(5CDs)

Emil Gilels Recitals of 1962-1970

러시아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에밀 길레스가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멜로디야에서 남긴 소중한 기록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바흐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을 거쳐 폴랑, 쇼스타코비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통해 길레스의 심원한 음악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MEL CD 10 00877

Daniil Shafran

Schumann: Cello Concerto – Kondrashin / USSR State Symphony
Dvorak: Cello Concerto – Jarvi / Estonia Symphony

드보르작 협주곡은 본사에서 라이선스로 발매한 1980년 녹음과 별개인 1979년 녹음입니다.



MEL CD 10 00770(6CDs)

Mravinsky
Shostakovich Symphonies Selection

- CD 1 Symphony No.5 & Oratorio 'Song of the Forests'
- CD 2 Symphony No.7 'Leningrad'
- CD 3 Symphony No.8
- CD 4 Symphony No.6 & No.10
- CD 5-6 Symphony No.11 'Year 1905' & No.12 'Year 1917' & No.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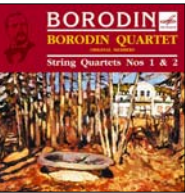


MEL CD 10 00821

The Art of Maria Yudina

Brahms : Variation & Fugue on Handel's Theme
Piano Quartet No.2 with Dmitri Tzyganov, vn / Feodor Druzhinin, va / Sergei Shirinsky, vc

스탈린의 총애를 받았던 구소련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 유디나 니콜라예바와 더불어 구소련을 대표하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마리아 유디나. 아직은 소수 마니아들의 전유물과도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 음반의 등장과 함께 보다 많은 애호가들이 소문 속에 감추어져있던 이 연주자의 심원한 실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음반에는 그녀가 연주하는 브람스의 '하이드 주제의 변주곡' 과 더불어 냉전 시대 소련의 대표적인 현악연주자들인 드미트리 치가노프, 페오도르 드루진닌, 세르게이 시린스키와 호흡을 맞춘 브람스의 피아노사중주 2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MEL CD 10 00942

보로딘: 현악사중주 1,2번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오리지널 멤버)

수차에 이르는 멤버교체를 거치면서 러시아 실내악의 전통을 오늘까지 계승해오고 있는 보로딘 현악사중주단. 이 음반은 오리지널 멤버들의 의한 1958년 녹음을 담았다.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온 두 작품에 임하는 이들의 태도가 남달랐을 것이며, 그 연주결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으로 후대에 남겨졌다.

MDG Best 25



MDG 6031253

Onslow: Chamber Music Vol.2 / String Quintet Op.34 & 35

Quintett Memento Musicale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였던 조르주 온슬로우의 실내악곡집 2탄. 온슬로우는 런던에서 두세과 함께 공부하였고, 파리에서 안톤 라이하에게서 작곡을 배웠다. 현악사중주를 35곡, 현악오중주를 34곡이나 완성했던 그였던만큼 이 음반에 실린 곡은 그야말로 실내악 대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MDG 6031233

Onslow: Chamber Music Vol.1 / String Quintet Op.33 & 74

Quintett Memento Musicale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관습적인 기교를 이 창의적인 작품에 접목시켰다. 서정적인 멜로디를 따뜻한 프레이징으로 표현하였고, 고전시대의 구조적 안정감과 낭만시대의 유연함 사이에서 대단히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BBC Music Magazine-



MDG 3121323

Bach / Busoni – Liszt

Busoni: Nach der Wendung / Elegies
Liszt: Petrarca Sonette Nos.4-6, Resignazione
Bach: Goldberg Variation (arr.Busoni)

Claudius Tanski, Klavier

부조니가 편곡한 골드베르크 변주곡. 후기낭만시대의 대표적인 피아노 비르투오조였던 부조니. 그의 음악적 뿌리는 바흐를 향해있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바흐 작품들의 편곡들 중에서도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성과는 탁월하다. 부조니 스페셜리스트 탄스키의 발군의 연주는 수록곡들의 가치를 한층 높여준다.



MDG 3041263

SPOHR: Chamber Music

Quintet op. 52 / Sextet op. 140 / Septet op. 147 / Quintet op. 130

Ensemble Villa Musica

Diapason 5점 / Repertoire 추천음반.
Klassik Heute 추천 / Echo Klassik 추천독일 비평가협회 추천음반 / "보기 드문 완벽한 음반" (FonoForum)



MDG 3291299

WITT: Orchestral Works

Symphony No. 6 & 9, Flute concerto

Susanne Barner, flute / Johannes Moesus, cond. / Hamburger Symphony

잊혀진 고전 작곡가의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관현악 작품들. 베토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독일의 작곡가 프리드리히 비트. 음반에 수록된 그의 두 교향곡은 베토벤의 중기 작품들에 필적하는 당당한 스케일과 높은 완성도의 작품구조를 보여준다. 적극 추천반.



MDG 3011344

HUMMEL : Serenades

Grande Serenade Op.66, 63, Potpourri Op.53

Consortium Classicum

훔멜의 작품 속에 담긴 모차르트의 친근한 선율들. 훔멜의 목관을 위한 세레나데로 큰 호평을 얻었던 콘소르티움 클라시쿰이 또 하나의 멋진 훔멜 음반을 선보였다.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클라리넷, 바순이라는 독특한 편성을 위해 작곡된 두 편의 세레나데는 빈 민요에서 모차르트에 이르는 친근한 선율들로 엮어진 재미있는 작품들이다.



MDG 3411302

Mozart: Complete Clavier Works Vol.2
Sonata K576, 12, 332, 570, Menuetto k15i, 15k

Siegbert Rampe, Harpsichord & Clavichord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로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작품들
국내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던 1집에 이어 지그베르트 램페의 두 번째 모차르트 음반이 등장하였다. 지난 음반과 마찬가지로 포르테피아노는 물론,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모차르트의 작품들에 다양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MDG 3010595

Brahms: Horn Trio Op.40 / Clarinet Trio Op.114

Dieter Klocker, Clarinet / Sebastian Weigle, horn / Wolf Dieter Streicher, violin /
Christoph Henkel, cello / Claudius Tanski, piano

경쟁자를 압도하는 경이로운 두 연주. -Stereoplay-
매력적인 커플링, 훌륭한 녹음. -FonoForum-
연주자들의 탁월한 예술적 재능과 실내악연주분야를 통해 채득한 풍부한 경험이 만들어낸 표준적인 브람스 해석, 정교하고 균형 잡힌 연주이다. 적극 추천한다. -Fanfare-



MDG 3070719

BRAHMS: Quintet for Clarinet & String Quartet Op.115 /
String Quartet Op.51,2

Karl Leister, clarinet / Andreas Seidel, violin / Tilman Buning, violin / Ivo Bauer, viola /
Matthias moosdorf, violoncello

클래식 CD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브람스 연주'. 그라모폰 '너무나 매력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 칼 라이스터가 라이프치히 4중주단과 함께 한 브람스 클라리넷 5중주. 라이스터의 여유 있는 리드가 브람스 만년의 결착이 가진 원숙한 아름다움을 통일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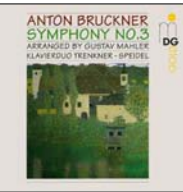


MDG 3411301

MOZART: Complete Clavier Works Vol.1
Phantasia KV 475 / Sonata KV 457 / Thema con 5 Variazioni KV 54 /
Menuetto KV 2 / Clavierstück KV 15ii / Clavierstück KV Anh. 109b,9 /
Sonata V KV 283 (189h)

Siegbert Rampe, harpsichord, clavichord & fortepiano

3종류의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참신한 모차르트
MDG가 모차르트의 피아노작품전집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이 야심에 찬 기획의 첫 신호탄이 바로 이번 신보. 독일 시대악기 연주계의 저명한 건반주자 지그베르트 램페가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주인공이다.



MDG 3300591

Bruckner / Mahler: Symphony No.3 (arr. Mahler)

Evelinde Trenkner & Sontraud Speidel

브루크너와 말러의 신선한 만남
후기 낭만시대의 교향곡분야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완벽한 결합체를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된 브루크너의 교향곡 3번은 이 작곡가에 대한 말러의 깊은 존경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브루크네리안과 말러리안 모두의 필청음반.



MDG 6011315

Schubert: Der Tod und Madchen (arr. Mahler)
Mahler: Adagietto (Symphony No.5)

Kiev Chamber Orchestra / Roman Kofman

말러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말러는 슈베르트의 인기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를 보다 풍성한 소노리티를 드러내는 훌륭한 현악합주용 작품으로 편곡하였다. 말러의 느린 악장 중 가장 큰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5번 교향곡의 아다지오토가 멋진 커플링을 이룬다.



MDG 6031313

BRUCKNER: Symphony No. 7 (Chamber version)

Thomas Christian Ensemble

편성은 축소되었으나 감동의 강도는 변함없다.
브루크너의 원대한 소우주를 살롱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축소시킨 장본인들은 쾨베르크의 제자들인 아이슬러, 랑글, 그리고 슈타인. 편곡이 가져오는 효과는 기대이상이다.



MDG 3371202

SHOSTAKOVICH: Symphonies No. 5 & 9

Beethoven Orchester Bonn / Roman Kofman, conductor

독일 Klassik Heute 추천음반 독일 Crescendo 탁월한 음반
쇼스타코비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이나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음반.(Crescendo)
저장 로만 코프만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치클루스 두 번째 음반.



MDG 3091314

TELEMANN: Concerto TWV 43:D4 / Concerto di camera TWV 43:g3 /
Sonatina TWV 41:c2 / Overture TWV 55:F2 / Concerto TWV 43:D4 /
Sonatina TWV 41:a4

Musica Alta Ripa

중독 될 가능성이 높은 음반(Phonoforum)
이번 신보에 수록된 텔레만의 협주곡, 서곡, 소나타들은 작곡가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창조적인 재능을 잘 보여준다. 텔레만이 한때 섬겼던 소로우의 백작은 프랑스풍의 음악들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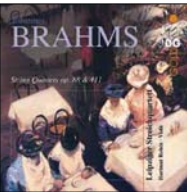


MDG 3421262

Dvorak: Piano Trio Vol.2 / Trio Op.26 / Trio Op.90 'Dumky'

Vienna Piano Trio

베스트앙상블 라인업이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실내악, 말 그대로 완벽하다(Radio K1)
작곡가의 25세 때 작품인 Op.26은 조숙한 음악성과 작곡기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뚝키'는 명성 그대로 국민주의 성향을 짙게 드러내는 걸작. 15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어온 비엔나 피아노 트리오의 관록이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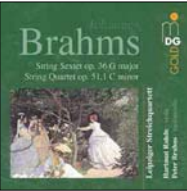


MDG 3071251

BRAHMS: String Quintet, Op. 88 & 111
String Quintet, Op. 88 & 111

Hartmut Rohde, viola / Leipziger Streichquartett

Classicstoday 10점 만점음반.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브람스연주 (Classic CD)



MDG 3071281

BRAHMS: Sextet Op.36 / String Quartet Op.51,1
String Sextet Op.36 G major / String Quartet Op.51,1 C minor

Hartmut Rohde, viola / Peter Bruns, violoncello / Leipziger Streichquartett

Diapason 5점 음반, Classicstoday 10/10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브람스.(Classic CD)
작곡가의 가장 인기 있는 실내악들인 두 곡의 현악육중주에서 저명한 연주자들인 비올리스트 하트무트 로데, 첼리스트 페터 브룬스와 호흡을 맞추었다. 서 모차르트에 이르는 친근한 선율들로 엮어진 재미있는 작품들이다.



MDG 3421261

DVORAK: Piano Trios Vol. 1 / Trio Op. 21 & 65

Vienna Piano Trio

독일 Crescendo 탁월한 음반.

Op.23은 고전적인 실내악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매력적이며, 수많은 퇴고의 고통 끝에 완성된 Op.65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정신적인 혼란기의 작품답게 격정적인 선율과 극단적인 감정의 대비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MDG 3071218

BRAHMS : Piano Quintet in F minor, Op.34 / Piano Quintet in F minor, Op.34

Andreas Staier, piano / Leipziger Streichquartett

Classicstoday 10점 만점.

뛰어난 연주를 담은 감동적인 브람스오중주(Classicstoday)라이프치히사중주단과 안드레아스 슈타이어의 만남.



MDG 3071297

BRUCKNER: String Quartet & Quintet
String Quartet & Quintet / String Quintet F major

Hartmut Rohde, viola / Leipziger Streichquartett

브루크너의 원대한 음악세계가 실내악으로 농축되다.

브루크너의 교향곡에 담긴 심원한 음악세계에 열광하는 이들이라면 그 압축판인 이 두 작품에서도 동일한 감동을 얻게 될 것이다.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들이 중심이 된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의 연주.



MDG 3010434

Johann Christian Bach / Six Wind Symphonies

Consortium Classicum

바흐의 막내아들의 관악앙상블을 위한 작품들.

런던의 바흐라고 불리던 요한 크리스티안은 바흐와 모차르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음반에 수록된 관악앙상블을 위한 여섯 곡의 작품들은 출판사에 의해 교향곡이라는 타이틀이 붙게된 것으로 작곡가의 밝고 천진한 천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MDG 3411213

Muffat: Clavier Works

(Partita D minor, Partita F major, Gigue G major, Partita C major etc)

Siegbert Rampe, Harpshicord & Clavicord

Classicstoday 10/10

17세기 후반 작곡가 무파트의 팬이라면 건반작품 전곡의 최초 녹음인 이 신보가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작품에 따라 하프시코드와 클라비코드를 적절히 활용한 람페의 감각이 돋보이며, MDG의 사운드는 오디오파일 퀄리티를 보장한다. 적극 추천한다. John Greene, Classicstoday



MDG 6031332

RASSETTI : Trios No. 1~3

Trio Amedee

요절한 천재작곡가의 신선한 실내악.

아메데 라세티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이며, 그 역시 40대가 되기 전에 요절하였다.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삼중주는 피아노, 플루트, 바순이라는 색다른 악기들의 조합을 통해 신선한 음악적 감흥을 선사한다.



MDG 6041271

GRIEG: Lyric Pieces

In der Heimat: In my native country op. 43, 3 / Gade: Gade op. 57, 2 / Heimweh: Homesickness op. 57, 6 / Heimwärts: Homeward op. 62, 6

Heidi Kommerell, forte piano

그리그의 사랑스러운 소품을 당대의 피아노로 연주하였다.

코머렐은 1827년에 제작된 난네테 슈트라이허 그랜드피아노의 고아한 음향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 작품집의 하이라이트들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LPO Best Titles



LPO 0001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 교향곡 5번

쿠르트 마주어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권위를 인증 받은 1번 교향곡의 강력한 연주. -The Guardian-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의 장엄한 연주. -Financial Times-

10월 18, 20일 내한공연을 앞둔 쿠르트 마주어와 런던 필하모닉의 2004년 1월 실황연주 Hybrid-SACD를 미드 프라이스 일반 CD가격대에 드립니다.



LPO 0002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전주곡과 알레그로
브리튼: Our Hunting Father

히데 하퍼, 소프라노 / 베르나르드 하이팅크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거장 하이팅크는 1967년부터 1979년까지 1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런던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하면서 악단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던 장본인이다. 상임의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도 기회되는 대로 이 악단을 즐겨 지휘하였는데, 본 음반에는 영국의 국보급 소프라노 히데 하퍼와 함께 한 브리튼의 'Our Hunting Father'(1979년 실황), 엘가의 대표적인 관현악곡들인 '전주곡과 알레그로' (1984년 실황)과 '수수께끼 변주곡' (1986년 실황)을 함께 수록하였다.



LPO 0003

바그너: Highlight from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니벨룽의 반지, 탄호이저

클라우스 텐슈테트/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독일 출신의 거장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1983년부터 10년 가까이 런던 필하모닉의 수장을 맡으면서 이 오케스트라의 일취월장의 발전상을 이끌어내었다. 레퍼토리의 폭은 그리 넓지 못했지만, 말러, 브루크너, 바그너와 같은 독일 후기 낭만파의 대곡들에서 보여준 그의 폭발적인 기량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본 바그너 걸작선은 1992년 로얄 앨버트 홀에서 펼쳐진 프롬나드 콘서트의 실황을 옮긴 것으로 텐슈테트의 선 굵은 거장성이 돋보이는 연주이다.



LPO 0004

라흐마니노프: 죽음의 섬, 심포닉 댄스

블라디미르 유로프스키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로프스키에 의해 눈부시게 연출된 죽음의 섬" - The Guardian -

"심포닉 댄스의 연주는 한마디로 대단히 뛰어나다." - Daily Telegraph -

영국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런던 필의 수석객원지휘자 겸 글라인드본 페스티벌의 음악감독 유로프스키의 2003/4년 실황. Hybrid-SACD를 미드 프라이스 일반 CD가격대에 드립니다.



LPO 0005

Hybrid SACD – 4.0 Channel Surround/Stereo
Paavo Berglund conducts Sibelius
Jean Sibelius : Symphony Nos. 2 & 7

이 시대 최고의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인 핀란드 출신의 거장 파보 베르클룬트의 최신 시벨리우스 교향곡 집. 작곡가의 가장 인기높은 교향곡 두 편을 모았습니다. (2번: 2005/02/16 live, 7번: 2003/12/06 live)
"교향곡 2번은 압도하는 힘과 불타는 열정이 가득한 연주다." –The Guardian–
"베르클룬트가 지휘한 교향곡 7번은 파워와 응집력 면에서 매우 훌륭하다." –Independent–



LPO 0006

The Founding Years of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sir Thomas Beecham Conducts The LPO
Sibelius: Tempest, Mozart: Symphony No.35, Chabrier: Espana etc.

런던 필의 창립 직후인 1934년 리즈 페스티벌에서의 연주와 1939년의 녹음인 모차르트 교향곡 35번을 유명한 복각 전문가 마이클 듀톤의 손을 거쳐서 복원한 음반이다. 런던 필의 창립 초기와 그들의 대부 비첨 경의 모습을 담은 귀중한 기록으로 우수한 복각 덕분에 녹음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음향을 담고 있다.

SDG Best Titl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음반]



SDG 101(2CDs)

Solists : Gillian Keith & Joanne Lunn, sop / Wilkete Brummjelstroete, alt / Paul Agnew, te / Dietrich Henschel, bass

Cantatas for the Feast of St. John the Baptist (CD1)

BWV 167 – Ihr Menschen, ruhmets Gottes Liebe(너희들 인간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
BWV 7 – Christ unser Herr zum Jordan kam(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요단강가에 오셨도다)
BWV 30 – Freude dich, erloste Schar(기뻐하라 구원받은 무리여)

Cantatas for the 1st Sunday after Trinity (CD2)

BWV 75 – Die Elenden sollen essen(가난한 자는 배불리 먹으리라)
BWV 20 – O Ewigkeit, du Donnerwort(오 영원이여 우뢰같은 목소리여)
BWV 39 – Brich dem Hungrigen dein Brot(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어라)



SDG 104(2CDs)

Solists : Katharine Fuge & Malin Hartelius, sop / William Tower & Robin Tyson, alt / James Gilchrist & Mark Padmore, te / Thomas Guthrie & Peter Harvey, bass

Cantatas for the 15th Sunday after trinity (CD1)

BWV 138 – Warum betrubst du dich, mein Herz(내 마음아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BWV 99 – Was Gott tut, das is wohlgetan(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 II)
BWV 51 – Jauchzet Gott in allen Landen!(만민이여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라)
BWV 100– Was Gott tut, das is wohlgetan(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 III)

Cantatas for the 16th Sunday after Trinity (CD2)

BWV 161 Komm, du susse Todesstunde(오라 달콤한 죽음의 시간이여)
BWV 27 Wer weiss, wie nahe mir mein Ende!(내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누가 알랴)
BWV 8 Liebster Gott, wann werd ich sterben?(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저는 언제 죽게 되나이까?)
BWV 95 Christus, der ist mein leben(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요)



SDG 107(2CDs)

Solists : Brigitte Geller, sop / William Towers & Robin Tyson, alt / Mark Padmore & James Gilchrist, te / Julian Clarkson & Steven Varcoe, bass

Cantatas for the Third Sunday after Easter (CD1)

BWV 12 – Weinen, Klagen, Sorgen, Zagen(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다)
BWV 103 – Ihr werdet weinen und heulen(너희는 울며 부르짖으리라)
BWV 146 – Wir müssen durch viel Trubsal in das Reich Gottes eingehen(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

Cantatas for the Fourth Sunday after Easter (CD2)

BWV 166 – Wo gehest du hin?(너는 어디로 가느냐?)
BWV 108 – Es ist euch gut, dass ich hingehe(내가 이 세상을 떠남은 너희를 위함이라)
BWV 117 – Sei Lob und Ehr dem höchsten Gut (Cantata 'per ogni tempo')(지고의 선에 찬미와 영광 있으라)

[2005년 12월 그라모폰 이달의 음반]



SDG 110(2CDs)

Solists : Joanne Lunn, sop / William Tower, alt / James Gilchrist, te / Peter Harvey, bass

Cantatas for the 19th Sunday after Trinity (CD1)

BWV 48 – Ich elender Mensch, wer wird mich erloesen(나는 불행한 자, 누가 나를 구원하리)
BWV 5 – Wo soll ich fliehen hin (나 어디로 피할 것인가)
BWV 90 – Es reisset euch ein schrecklich Ende(무서운 종말이 너에게 다가왔도다)
BWV 56 – Ich will den Kreuzstab gerne tragen(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노라)

Cantatas for the Feast of the Reformation (CD2)

BWV 79 – Gott derGerr ist Sonn und Schild(주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방패이시라)
BWV 80 –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내 주는 강한 성이요)
BWV 192 – Nun danket alle Gott(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SDG 113(2C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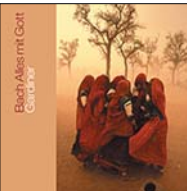
Soloist: Katharine Fuge & Joanne Lunn, sop / Robin Tyson & William Towers, alt / James Gilchrist, te / Peter Harvey, bass

Cantatas for Christmas Day

BWV 91 – Gelobet seist du, Jesu Christ(예수 그리스도여, 찬송을 받으소서)
BWV 110 – Unser Mund sei voll Lachens(우리들 입가에 웃음이 넘치게 하소서)

Cantatas for the Second Day of Christmas

BWV 40 – Dazu ist erschienen der Sohn Gottes(저 곳에 주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BWV 121 – Christum wir sollen loben schon(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라)



SDG 114(1CD)

Elin Manahan, sop

Birthday Ode for Duke Wilhelm Ernst of Saxe-Weimar, 1713

BWV1127 – Alles mit Gott und nicht ohn' ihn(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함이요)
–2005년 6월에 발견된 바흐의 새로운 칸타타–

+ 바흐 칸타타 순례의 하이라이트 모음

Proprius Best 10



PRCD 7744

안티폰 블루스

프로피리우스가 사랑하는 최고의 앨범.색소폰과 오르간. 무언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독특한 악기편성이 들려주는 클래식 소품들과 유명 흑인영가와 스웨덴 성가와 듀크 엘링턴의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구스타프 스요크비스트가 연주하는 오르간의 선율과 아르네 돔네루스의 블루스적 색채가 강한 색소폰이 만들어 내는 오묘한 조화의 환상적 연주를 체험 할 수 있는 최고의 음반이다.이미 오디오 파일 매니아들의 인정을 받은 최고의 음반이다.



PRSACD 7778

Jazz at the pawnshop SACD (HAYBRID)

그동안 오디오 매니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재즈 오디오 파일용 음반. 1979년 조그마한 재즈클럽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지금껏 발표된 어느 라이브음반보다도 생생한 현장감과 뛰어난 녹음을 자랑한다. 특히 아르네 돔네우스 콧셋이 들려주는 클라리넷과 비브라폰 연주는 미국의 그 어느 재즈 밴드보다도 스윙감이 물씬 풍기는 감칠 맛나는 재즈를 선사한다.



PRCD 7762

칸타테 도미노

우리의 민요 "아리랑" 편곡으로 더 잘 알려진 음반. 프로피리우스의 음악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반세계의 대표 성가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 알프 린다르의 오르간 독주를 간간이 수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민요 아리랑을 영국의 말콤 서전트가 편곡해 "자장가"라는 타이틀로 수록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재현하는 우리의 민요 아리랑의 새로운 해석이 돋보이는 음반이다. 시종일관 단정하면서도 풍성한 울림이 매우 매력적이다.



PRCD 9004

호칸 하게고드가 부르는 성가곡집

우리와 친숙한 크리스마스 성가를 최고의 음질로스웨덴어로 불러지는 유명 성탄 성가곡들을 감상 할 수 있는 음반이다. 스웨덴의 바리톤 가수 호칸 하게고드의 강하고 호소력 있는 음성을 감상 할 수 있는 음반이다. 이에 보조를 맞춰 안다르스 오르발과 아돌프 프레드릭스 합창단의 배경에 깔리는 연주는 하게고드의 음성을 도와 성스럽고 경건한 느낌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생소한 언어로 들려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생명의 양식"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성함과 조화를 이룬 경건함으로 감상 할 수 있는 최고의 음반이다. 음질 또한 최고의 음반이다.



PRCD 9110

마음 깊은 곳에서 HEARTFELT

연주: 아르네 돔네루스(색소폰&클라리넷), 구스타프 스윅비스트 (오르간), 루네 구스 타프손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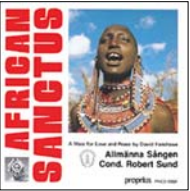
안티폰 블루스'의 스웨덴 색소폰 연주자 아르네 돔네루스가 그 명반의 후속 작으로 내놓은 것이다. 음반은 '오 하나님,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여'로 아르네가 자신의 클라리넷 실력까지도 한껏 뽐내며 시작한다. 음악적인 아름다움이 각별해서 금방 깊은 감동의 늪에 빠지게된다. '개구리가 있는 연못에서'는 색소폰이 무척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다. 듀크 엘링턴의 '양치기' 등 그의 몇몇 명곡들은 오스카 피터슨의 명곡 '자유의 찬가(Hymn to Freedom)'와 함께 이 음반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듀크 엘링턴의 오른손이었던 빌리 스트레이혼의 '오늘밤엔 잠 잘거야는 아주 로맨틱한 잠을 청하게 만든다. 이번 음반도 음향이 너무 좋다. 또 한번 하이엔드 음향 기기를 가지고 있는 애호가들을 열광시킬 것으로 보인다.



PRCD 9093

복음 성가를 부르는 새로운 방식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 흔들리는 이에게 평화를 주노라... 전통적인 성가라 하면 오르간의 경건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떠올린다. 어쩌면 너무나 틀에 박혀 있는 음악이라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떨치게 하는 음반이다. 기타와 플루트, 그리고 한결 부드러워진 오르간의 울림, 잘 정리되어 울려 퍼지는 스톱홀름 대성당 합창단의 음성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이 음반은 1976년 새롭게 정리된 '스웨덴 성가집'에서 뽑은 곡들로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Spread Your Wings Over Me'가 포함되어 있다.



PRCD 9984

아프리칸 상투스

월드 뮤직 강력 추천음반 아프리카 특유의 갖가지 알려지지 않은 타악기와 올마나 상젠이 아카펠라로 부르는 성가는 경건함과 원시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모습으로 가득차 있다. 이 음반은 영국의 음악가 데이빗 팬쇼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이집트, 우간다등지를 5년간 여행하면서 수집한 아프리카 민속성가를 토대로하여 제작되었다. 월드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쉽게 지나치진 못 할 음반이며 프로피리우스의 음질 또한 이 음반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PRSACD 7744

안티폰 블루스 SACD (HYBRID)

색소폰과 오르간. 무언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독특한 악기편성이 들려주는 클래식 소품들과 유명 흑인영가와 스웨덴 성가와 듀크 엘링턴의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구스타프 스요크비스트가 연주하는 오르간의 선율과 아르네 돔네루스의 블루스적 색채가 강한 색소폰이 만들어 내는 오묘한 조화의 환상적 연주를 체험 할 수 있는 최고의 음반이다.이미 오디오 파일 매니아들의 인정을 받은 최고의 음반이다.



PRCD 7778

Jazz at the pawnshop Vol.1

그동안 오디오 매니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재즈 오디오 파일용 음반. 1979년 조그마한 재즈클럽에서 녹음된 이 음반은 지금껏 발표된 어느 라이브음반보다도 생생한 현장감과 뛰어난 녹음을 자랑한다. 특히 아르네 돔네우스 콧셋이 들려주는 클라리넷과 비브라폰 연주는 미국의 그 어느 재즈밴드보다도 스윙감이 물씬 풍기는 감칠 맛나는 재즈를 선사한다.



PRCD 9046

고전 스웨덴 남성 합창곡

스웨덴 남성 합창의 진수를 단 한장의 음반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북유럽 건장한 남성들의 든든하고 우렁찬 음성을 마음껏 감상 할 수 있는 음반이다.이 음반은 스웨덴 전역에 울려 퍼졌던 유명 합창곡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농부의 결혼식'이라는 소박하고 흥겨운 곡을 비롯하여 스웨덴 남성 합창의 황금기에 불려졌던 곡들이 많이 수록 되어있다. 오르페이 드렌가르 합창단과 에릭 에릭손이 부활시킨 "스웨덴 남성 합창 황금시대 !!!"를 뛰어난 음질로 재현했다.

KKV Best 10



FXCD 221

KARI BREMNES(카리 브렘네스): NORWEGIAN MOOD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싱어 송 라이터 카리 브렘네스의 세계시장 데뷔작. 각각의 곡들에서 느껴지는 뛰어난 작곡실력도 돋보이지만, 재즈, 포크, 록 등 다양한 음악을 편안하면서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카리 브렘네스의 재능이 더욱 빛난다. 어쿠스틱 악기들의 편안한 울림과 축축한 보컬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앨범. (KKV 판매 차트 1 위 !!!)



FXCD 178

SUSANNE LUNDENG: ATTASYN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수사네 룬덴의 최고의 앨범! 현재 국내에서 발매된 앨범은 절판된 상태이며, 수입음반으로만 들을 수 있다. 가슴 저미도록 슬픈 연주곡 '당신의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FXCD 277

수사네 룬덴: Forunderlin ferd(특별한 여행) [HDCD]

노르웨이에서도... 한국에서도 바이올린 연주자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수사네 룬덴의 4번째 2004년 새앨범. 포크 음악계에서 가장 흥미있고 혁신적인 음악인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느낌, 그녀의 특별한 음악을 전통적인 스타일과 현대적인 테크닉으로 혼합하는 아마도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현대 포크 음악가 이고 작곡가이다. 바이올린 연주뿐 아니라 그녀의 보컬이 앨범에 담겨 있으며 이번앨범의 총 제작을 그녀가 직접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 이어 또 하나의 히트작. *** 추천곡 : #3(슬픈연주), #4(밤음..폴카스타일), #10(잔잔한 바이올린 연주)



FXCD 137

SILJE VIGE(실리에 비게) / ALLE MINE TANKAR

정경무구한 보컬과 여러 현악기의 조화가 쉽게 증발하지 않는 감동을 전한다. 국내 히트곡 <Adle E Aleina (아들레 에 알레이나: 모두가 혼자예요)>, 드라마에 쓰였던 <Vi Vil Vite (비 빌 비테: 알고 싶어요)>는 필청곡!"



FXCD 258

Kari Bremnes: You'd have to be here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Norwegian Mood(2000)"에 이은 두 번째 세계 시장 공략 앨범. 카리 브렘네스는 이번 음반의 11곡 중 2곡만 빼고 전곡을 직접 작곡 작사하는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록곡 대부분이 서정적인 발라드로 카리 브렘네스 특유의 우수여린 보컬은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여운을 남긴다. ** 추천곡 : #1, #2 외 전곡 영어앨범



FXCD 241

SPANISH MIRACLES(스페인의 기적) – Aage Kvalbein

로드리고 – ADAGIO FROM CONCERTO DI ARANJUEZ사라사테 – ROMANZA ANDALUZA 등등 19곡의 아름다운 클래식



FXCD 155

Anne Vada: Oy I Live

천상의 목소리를 지녔다는 노르웨이 여가수 안네 바다의 국내 최고의 히트 앨범. 스캇송 'EROS'는 국내 음악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발매되었던 라이선스는 절판이며 오리지널 수입만 소개됩니다.



FXCD 275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Joy [HDCD]

합창단이 현대적 가스펠과 함께 그들의 음악적 뿌리로 되돌아 가다.많은 나라에서 특히 USA에 있는 가스펠 모임중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가스펠 합창단으로 꼽힌다. 이 CD에서 합창단은 현대적 스윙 가스펠 음악과 함께 그들의 음악적 뿌리로 돌아갔다. 이 CD에서 Tor Aas 에 의한 새로운 10곡은 가스펠 음악에 현대적 팝의 요소를 더하는 유행을 유지하며, 새로운 CD에서의 트랙중 두곡은 노르웨이 국영 라디오나 지방 방송국에서 인기가 매우 많다.



FXCD 259

OSLO GOSPEL CHOIR, PRINCESS MARTHA LOUISE & SIGVART DAGSLAND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과 시그바르 닥슬란:그 시절을 지나쳤다네)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과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남자가수 시그바르 닥슬란이 만들어 낸 완벽한 조화. 9곡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2곡의 새로운 가스펠곡이 수록. 특히, 가스펠 두 곡에는 마르타 루이제 노르웨이 공주가 직접 협연하여 그녀만의 깊고 멋진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 유열의 음악앨범 '평화' #10번곡 수록.



FXCD 157

SIGVART DAGSLAND: DET ER MAKT I DE FOLDEDE HENDER (펼쳐진 하느님의 손의 권능)

팝 아티스트가 보물과 같은 찬송가와 만난다. 거의 500년의 역사의 시편과 닥슬란의 목소리의 경외심 가득한 만남이다. 테레 리프달(Terje Rypdal)의 처절한 기타와, Ole Edvard Antonsen의 드럼, 그리고 Iver Kleive의 장엄한 처치오르간이 하나로 어울려 거대한 감동을 선사한다.



FXCD 164

IREN REPPEN: DET E HARDT VÆRE MAI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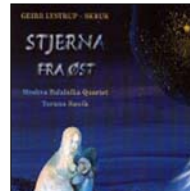
이렌 레펜- 데 에 하르트 오 베레 마인: 진정한 남자)힐켈리호 레이블의 요정, 이렌 레펜의 '96년도 음반으로, 전체적으로 재즈와 모던 록이 혼합된 독특한 분위기가 공존한다. 넉넉한 분위기의 <P Cafe (포 카페: 카페에서)>, 상큼하면서도 양중맞은 <Pene Menn (페네 멘: 멋진 남자)>에서의 능수 능란한 감정표현이 알미울 정도이다. *** 롯데카드 TV-CF : #1<PENE MENN>수록



FXCD 271

Arja Saijonmaa(아르야 사온마): Arja nara(Close to Arja)

스웨덴 실력과 여자가수 아르야 사온마(Arja Saijonmaa)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사랑의 시가(詩歌)를 찾아 이번 앨범에 담았다. 그녀가 콘서트에서 자주 부르는 곡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음유시인 안젤로 브랜두아르디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곡을 자신에 보컬 스타일에 맞춰 스웨덴어로 불렀다. 풍부한 성량과 최고의 감성 표현으로, 비록 외국 곡들이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 내어 아르야 사온마의 노래로 만들었다. *** 강력추천곡 : #2, #5, #6, #9



FXCD 260

SKRUK: STJERNA FRAOST

절묘하게 어우러진 노르웨이 언어와 서정적인 러시아의 선율. 따뜻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전하는 노르웨이의 스크룩 합창단과 감미로운 발랄라이카 연주의 대명사 모스크바 발랄라이카 사중주가 협연한 음반. '모스크바 교외의 저녁', '검은 눈동자', '주위는 온통 초원' 등 17곡의 귀에 익은 러시아 민요를 스크룩 합창단이 노르웨이 말로 불렀다. *** 강력추천 : 유열의 음악앨범 '평화' #6번곡 수록.



FXCD 153

SUSANNE PENA(수산네 페냐): SENTIMENTO

에쿠아도르 출신의 수산네 페냐가 힐켈리흐 레이블을 통해 발매한 첫 앨범. 호느끼는 듯한 푸른 목소리로 들려주는 NOSTALGIA를 비롯해 탱고, 볼레로, 페루비안 왈츠, 살사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 유열의 음악앨범 '평화' 수록.



FXCD 272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Salmeskatt <성가의 보고(寶庫)>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레코딩 판매고를 올리며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의 2003년 신작. 서정적이며 세련된 팝 음악적 접근을 통하여 가스펠 음악의 대중화에 성공한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은 이번 앨범에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화음의 성가를 선물한다. 교회가 아닌 거실에서 홀로 앉아 편안하게 감상하기에 딱 맞는 성가 모음집이다. 추천곡으로 어느곡 한곡 뽑을것 없이 편안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평화같은... 앨범입니다.



FXCD 156

Kari Bremnes: Erindring (회상)

카리 브람네스의 노래에서는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 95년도에 발표된 베스트 음반으로 카리 브람네스가 걸어온 음악행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한국, 한 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륜의 향기가 편안함으로 다가온다. 타이틀곡 <Erindring>에서는 '희망'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FXCD 140

SUSANNE LUNDENG(수산네 룬덴): DRAG

이 음반은 '94년에 발표한 데뷔앨범으로, 역시 우리 정서와 꼭 맞는 곡들로 가득하다. <Brurmarsj, Fra Lødingen (브루르마르시 프라 러딩겐: 러딩겐의 웨딩마치)>는 강력 추천곡!!!



FXCD 208

KATIA CARDENAL(카티아 카르데날): NAVEGAS POR LAS COSTAS

니카라과 출신 카티아 카르데날의 최고 인기 앨범, 남미 특유의 밝은 느낌, 북유럽의 낭만 그리고, 카 | 아의 부드러운 보컬이 음반전체에서 넘실거린다. 음반 재킷만큼이나 곱고 예쁜 곡들로 가득하며, 첫 곡 <Juan Y Sailomon (후안 이 살로몬: 요한과 솔로몬)>은 이미 라디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FXCD 193

Marianne Antonsen (마리안 안톤센): Frame This Moment

마리안 안톤센은 노르웨이 뮤지션임에도 흑인영가, 블루스의 재해석에 일가견이 있다. 특히 쉽게 흥내낼 수 없는 그녀만의 매혹적인 저음은 그러한 장르를 표현하는 데 안정맞춤이라 할 수 있다. 도로시 무어의 명곡 <Misty Blue>의 그윽한 리메이크는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



FXCD 220

Katia Cardenal- Brazos De Sol(카티아 카르데날 - 브라스스 데 솔: 태양의 힘)

니카라과 출신의 여성 보컬리스트 카티아 카르데날의 '96년도 앨범. 그녀의 자작곡과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같은 남미 유명 뮤지션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실린 서정적인 보컬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음식처럼 담백함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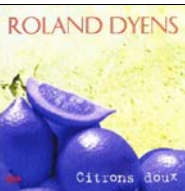
GHA Best Titles



GHA 126 006

DAVID RUSSELL: PASSACAILLE

David Russell의 Baroque 최고 명반. 스코틀랜드 태생의 David Russell의 가장 수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음반은 초기에 GHA에서 발매된 19세기 기타음악 앨범과 더불어 바로 이 Baroque Music 타이틀의 음반을 꼽을 수 있다. 이 음반에서는 Scarlatti의 소나타 4개의 작품, Bach의 플루트와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BWV 1034번, Handel의 하프시코드 조곡 제 7번을 직접 편곡하여 연주해주고 있다. David Russell의 현란한 테크닉과 음색은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는데도 잘 어울린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David Russell의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음반.



GHA 126 059

ROLAND DYENS: CITRONS DOUX

이미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타리스트로 자리매김한 롤랑디옹의 신보. 앨범 타이틀은 우리말로 달콤한 레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앨범 타이틀에 걸맞게 유쾌하면서도 리드미컬한 그의 작곡 실력과 섬세하면서도 세련된 편곡 솜씨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최근 그의 자작곡 중에서 떠오르고 있는 Flying Wigs가 수록되어 있고 기타 편곡에서는 드디어 쇼팽의 피아노 작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익히 그의 기타 편곡실력은 널리 칭송받고 있지만 디옹이 편곡한 쇼팽의 작품 가히 상상만으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특히 올해 국내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그의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앨범이다. 클래식기타 애호가들의 필청음반!

영국 저명 Classical Guitar지에 실린 음반평:
"If you know Dyen's previous work this will confirm positive impressions. If you are still unfamiliar with this great guitarist then I urge you to obtain it. I would find it strange for anyone not to be moved by the quality of Citrons Doux. The sound is superb, very smooth and Dyen's magical sense of colouration is captured magnificently. Sweet Ind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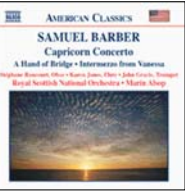


GHA 126 061

ROLAND DYENS: NIGHT AND DAY

이번엔 재즈다!!! 전작 Nuages에서 재즈곡 편곡을 통해 기타매니아들을 열광시킨 롤랑디옹의 최초 올 재즈 편곡 음반. 이미 무대에서 연주를 통해 청중들의 찬사를 불러일으킨 아메리칸 재즈 넘버들을 수록한 음반이다. 어메리칸 스탠다드 재즈 10곡이 수록된 이 앨범은 디옹의 재즈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기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디옹의 편곡솜씨는 특유의 맛깔스런 음색과 천부적인 리듬감과 어울려 이 대중적인 재즈 레파토리를 새롭게 장식하여 보석처럼 반짝이게 한다. 내년 3월 내한공연이 확정된 디옹이 선사하는 재즈의 선율에 몸을 실어보자. 이 가을에 클래식 및 재즈 애호가들을 사로잡을 강력 추천음반.

– 그라모폰이 선택한 낙소스의 명반들



Naxos 8.559135

[1월]
Barber: Orchestral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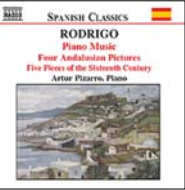
Karen Jones, fl/Stephane Rancourt, ob/John Gracie, tp/ Royal Scottish National/Marin Alsop
낙소스 바버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수한 음반. 연주는 산뜻하고도 확신에 차있으며, 녹음 역시 적절하다. (피터 딕킨슨)



Naxos 8.660105-06(2CDs)

[3월]
Kalman: Die Csardasfurstin

Various Soloists / Slovak Radio Symphony / Richard Bonynge
오페레타의 참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달콤새콤한 과자와도 같은 음반. 우수한 성악진의 노래에 보닝의 노련한 감각이 더해졌다. 낙소스의 경제성을 감안한다면 정말 놀라운 상품이다. (앤드류 램)



Naxos 8.557272

[4월]
Rodrigo: Piano Works, Vol 1

Artur Pizarro, pf
자주 접하기 힘든 로드리고의 피아노작품에 대한 환영할만한 음반. 피차로는 음악 속의 다양한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포착하였다. 이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을 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 놓쳐서는 후회할 것이다. (이반 마치)



Naxos 8.557283

[5월] –Disc of the Month–
Bridge String Quartets Nos 2 & 4, Phantasy Piano Quartet

Maggini String Quartet / Martin Roscoe, pf
마기니 사중주단이 출중한 스타일의 브리지 사이클을 완성하였다. 모범적이고도 꼼꼼하게 준비되어진 해석을 보여주며, 현실감있으면서 아름답게 균형을 이룬 사운드를 구비하였다. 놓쳐서는 안될 음반. (앤드류 아첸배치)



Naxos 8.557380-81(2CDs)

[6월]
Haydn: Die Schoepfung

Sunhae Im sop Jan Kobow ten Hanno M?ler-Brachmann bass / Cologne Vocal Ensemble; Capella Augustina / Andreas Spering
활기차고 훌륭하게 노래된 하이든의 마지막 코랄 마스터피스. 세 솔리스트는 싱싱한 음성과 뛰어난 노래를 들려주며, 슈페링은 작품의 내면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연출하였다. 뛰어난 염가 음반. (에드워드 그린필드)



Naxos 8.559249

[7월]
Bolcom Songs

Carole Farley, sop. / William Bolcom, pf.
페어리의 노래는 보다 오페라틱한 측면에서 주의를 끌며, 결과는 성공적이다. 작곡가의 음악언어가 지닌 다양성을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작곡가 자신의 반주는 연주의 신뢰감을 보장한다. (제임스 줄리)



Naxos 8.557278

[8월]
Boyce: 8 Symphonies, Op 2

Aradia Ensemble / Kevin Mallon
런던 출생의 18세기 작곡가에 입문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음반. 보이스의 작품에 담긴 근육적인 에너지와 춤곡과 같은 위트를 훌륭하게 함께 표현하였다. (데이비드 빅커스)



Naxos 8.557590

[9월]
Alwyn: Piano Concertos Nos 1 and 2
Peter Donohoe, pf / Bournemouth Symphony / James Judd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낙소스의 놀라운 음반. 도노호는 과단성있는 침착함과 더불어 놀라운 기교적인 용맹함을 펼쳐보인다. 지금까지 발매된 낙소스의 또 다른 승리자. 이제 작곡가의 교향곡들로 이어지길 바란다. (앤드류 애첸배치)



Naxos 8.557481

Weill: Symphonies Nos 1 and 2; Suite – Lady in the Dark
Bournemouth Symphony / Marin Alsop

만족스러운 교향곡 2번과 매력적인 커플링들이 이 음반을 최고로 만들었다. 이토록 확신에 찬 연주를 경험하지 못했다. 뛰어난 해상도의 사운드와 낙소스의 경제성이 더해진 추천음반. (패트릭 오코너)



Naxos 8.557641

[10월]
Bliss: Checkmate; Melee Fantastique
Royal Scottish National / David Lloyd-Jo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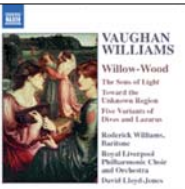
십여 년 전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는 대단히 훌륭한 블리스의 칼라 교향곡 음반을 완성하였다. 1936-7년에 니네트 드 발르와를 위해 완성하여 파리에서 초연된 작곡가의 발레 체크메이트는 그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명연이다. (제임스 줄리)



Naxos 8.559245

[12월]
Bernstein: Serenade; Facsimile; Divertimento
Bournemouth Symphony / Marin Alsop

마린 알소프와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완성한 또 하나의 생동감 넘치고 리드미컬한 연주. 생기발랄한 디베르티멘토는 보다 사색적인 세레나데, 팩시밀리와 훌륭한 조화를 만들어낸다. 폴의 라이트하우스에서 행해진 낙소스의 녹음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제임스 줄리)



Naxos 8.557798

Vaughan Williams: Willow-Wood; Choral Works
Roderick Williams bar / Royal Liverpool Philharmonic / David Lloyd-Jones

주목할 만한 본 윌리엄스 작품의 최초 녹음. 바리톤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윌로우 우드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시를 기초로 한 작품으로 놀라운 재발견이다.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는 리버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으로부터 능숙한 연주를 이끌어내었다. (제임스 줄리)

발매 전 주문 폭주, 발매와 동시에 베스트 셀러!

교보 핫트랙스, 예스 24, 포노 월드뮤직 판매순위 1위



따뜻한 세상을 향한 공감과 소통의 음악

세상의 모든 음악 3집 <저녁, 그 길모퉁이 카페...>

아울로스 뮤직과 KBS제 1FM이 공동 제작한 세상의 모든 음악 3집이 화려한 출발을 했다. 발매 전에 이미 주문이 폭주했고, 발매되자마자 서울 시내 주요 음반매장과 온라인 숍에서 판매 1위를 하며 월드 뮤직 애호가들의 절찬을 받고 있다. 1집, 2집이 물론 베스트셀러였고, 그 뜨거운 인기가 지금까지도 식을 줄 모르는데, 3집에 대한 열기는 그보다 더 뜨겁다. FM 라디오 방송 <세상의 모든 음악>이 2005년 한국방송대상 연예오락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애호가들에게 호소하는 힘이 더 탄력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음악 3집-저녁, 길모퉁이 카페>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오랜 준비기간을 거쳤다. 음반을 만들 때마다 내가 되새기는 생각은 '가장 방송에 충실한 음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간의 방송 프로그램처럼 기승전절이 있어서 음반 한 장이 콤팩트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신념이다. 이번 <세상의 모든 음악 3집>은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KBS 1FM <세상의 모든 음악> PD 김혜선-

[수록곡]

- 01 Nella Fantasia(Chloe)
- 02 Morning In Madrid(Nightnoise)
- 03 Dona, Dona(Tapiola Choir)
- 04 Remembering You(Eugene Friesen)
- 05 Varsog(Anne Vada)
- 06 Det Gar En Vind (지나간 바람)
(Arild Andersen/ Stian Carstensen)
- 07 Come Silver Moon(Philip Riley)
- 08 Cacion Triste(Jesse Cook)
- 09 Armenian Song(Kheops)
- 10 Mens Du Er Her (당신이 이 곳에 머물때)
(Linni Treekrem / Steinar Albrigtsen / Henning Kvitne)
- 11 Lungomare(Rene Aubry)
- 12 Twilight Time(Verdens Orchestra)
- 13 Beyond The Valley(Michael Hoppe)
- 14 The Oracle(Maria Farantouri)
- 15 The Letter Of Soldier(Isao Sasaki)
- 16 등대지기(안형수)
- 17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From The Evening Tide The Coming Dawn)
(슬기둥)
- 18 Take Me Home(Phil Coulter)

TDK DVD



TDK DVWW-BLSVA

들리브: 실비아

로마 신화의 님프와 목동의 사랑 이야기를 현대 감각으로 풀어낸 발레 목동 아민타는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의 님프이자 명궁(名弓)인 실비아와 사랑에 빠진다. 인간과 신의 금지된 사랑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사랑의 신 아모르의 중재와 다이아나의 윤희로 결국 결실을 맺는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코렐리아>의 작곡자 레오 들리브의 음악을 바탕으로 1876년 발레로 탄생했다. 하지만 뛰어난 음악에도 불구하고 발레로서는 공연될 기회가 적었다. 그래도 초연 당시의 무대인 파리 오페라 발레는 20세기에도 수차 새로운 안무로 이 발레의 부활을 시도했다. 본 영상물은 함부르크 발레의 존 노이마이어가 파리 오페라 발레를 위해 안무한 것을 수록한 2005년3월의 최신 실황이다. 노이마이어는 원작의 내용을 가급적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와 상징성을 가미하여 대단히 독창적인 발레를 만들었다. 파리 오페라의 에투알(최고무용수)이 다섯 명이나 출연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차기 예술감독으로 지목되는 마뮈엘 르그리(아민타), 현대적 발레리나의 이상형이라는 오렐리 뒤퐁(실비아), 카리스마 넘치는 장신의 발레리나 마리-아네스 기요(다이아나) 등의 전혀 색다른 춤에 흠뻑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자료]

○ <실비아>는 실제 공연될 기회는 적지만 들리브의 음악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와 그녀의 님프이자 활쏘기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비아를 묘사하기 위한 사냥 음악 등 독보적인 장면이 있다. 최고의 발레 음악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도 들리브의 <코렐리아>와 <실비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 참조했다고 한다.

○ 그러나 1876년 초연 당시부터 루이 메랑트의 안무는 음악적 상상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안무가들이 손을 댔지만 프레데릭 애쉬튼과 부분만을 다른 조지 발란신의 안무 정도가 살아남았을 뿐이다. 1997년 파리 오페라 발레의 의뢰로 새 안무를 선보인 존 노이마이어는 '재안무'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 발레를 창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의 야니스 코코스에게 무대와 의상을 맡겨 신화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고 원래 줄거리의 진행도 가급적 살려 놓았다.

○ 존 노이마이어(John Neumeier, 1943~)는 미국 출신이지만 유럽, 특히 독일에서 오랫동안 무용수로, 안무가로 활약했기 때문에 '뉴마이어'가 아닌 '노이마이어'로 읽힌다. 슈투트가르트 발레의 전설적인 안무가 존 크랑코의 제자이며 1973년 함부르크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어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웅장한 스케일, 또는 신화적인 다의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파트리치아 치오피(수잔나) / 에테리 그바자바(백작부인) / 조르조 수리앙(피가로) / 루치오 갈로(백작) / 주빈 메타(지휘) / 피렌체 테아트르 코무날레



TDK DVWW-OPNDF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가 남긴 주옥같은 오페라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품이다. 프랑스 극작가 보마르셰의 희극에 기초한 이 4막 오페라는 1786년 완성되어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빈 궁정극장에서 초연되었다. 1막에서 피가로가 부르는 '더 이상 날지 못하리', 2막에 등장하는 케루비노의 카바티나 '사랑의 괴로움을 아는 그대는', 3막의 백작부인의 아리아 '그리운 시절은 가고'와 수잔나와 함께 부르는 편지의 이중창 등 주옥같은 노래들이 전편에 가득하다. 이 영상물은 2003년 10월 피렌체의 유서 깊은 테아트르 코무날레의 무대에 올랐던 실황영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여전히 수많은 오페라 추종자들을 호령하고 있는 가장 주빈 메타가 지휘봉을 잡았다. 우선 두 주역 여가수가 주목할만하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파트리치아 치오피가 날선한 댄서의 수잔나를 열연하였고, 아바도의 말러 교향곡 2번 영상물로도 낯익은 미모의 러시아 소프라노 에테리 그바자바가 우아한 백작부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풍성한 성량을 자랑하는 만능 바리톤 조르조 수리앙과 성격파 바리톤 루치오 갈로가 각각 맡은 피가로와 백작 역시 흠잡을 곳이 없다.

불세출의 재즈 편곡가 길 에반스가 이끄는 독창적인 빅밴드 공연!

길 에반스 오케스트라 Live In Lugano

재즈사상 불세출의 빅밴드 지휘자요 편곡자로 평가받는 길 에반스!

말년에 이르러서도 백발을 휘날리며 정력적인 음악활동을 펼쳤던 그의 진면목을 확인. 할 수 있는 1983년 스위스 루가노 공연 실황! 마이클 브레커, 랜디 브레커, 빌리 코벤, 루 솔로프, 마이크 매너리 등 실력파 뮤지션들과 함께 70년대, 80년대 퓨전을 도입하여 진보적인 빅밴드 양상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10여분에 걸친 'Copenhagen Sights'와 'Stone Free'는 오직 그만이 낼 수 있는 독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운드라 하겠다. 화려한 드럼세트를 구성한 빌리 코벤의 드러밍이나 프랜치 혼, 튜바 등 좀처럼 빅밴드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관악기 구성은 이번 DVD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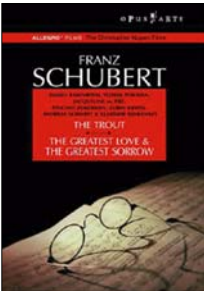
TDK DVWW-JGEO

BBC DVD Best Titles

BBC/Opus Arte
OA CN0902

이 귀중한 영상물 - BBC가 또 한번 놀라게 한다!!
여류 천재 첼리스트의 대명사 재클린 듀프레

그녀의 귀중한 영상물
오늘날 많은 여류 첼리스트들이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녀에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1973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전설적인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의 생생한 영상물. 엘가의 첼로 협주곡이라면 그녀의 전설적인 연주를 기억하지 못하는 애호가 는 없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 또 하나! 베토벤 피아노 3중주 5번 <유령>도 연주한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핀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재클린 듀프레. 우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BBC DVD, 수많은 상을 휩쓴 크리스토퍼 누펜 필름, BBC DVD 16:9화면/시간:150분/자막: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

BBC/Opus Arte
OA CN0903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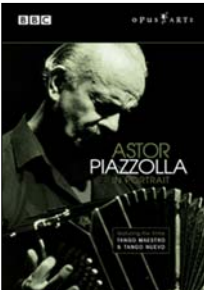
위대한 사랑, 커다란 슬픔
재클린 듀프레와 함께한 슈베르트 피아노 오중주 (송어)

우리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상물이 아닐까!
다니엘 바렌보임(pf), 이차크 필먼(vn), 재클린 듀프레(vo), 핀커스 주커만(va), 주빈 메타(bass) 다섯 사람이 모여 연주한 슈베르트의 송어 오중주, 1973년 뮌헨의 TZ-ROSE상 수상작이다. 바렌보임과 듀프레 두 천재 음악가와 지금은 거장의 칭호를 받고 있는 그들의 음악친구들이 함께한 유명한 필름. 보고 또 봐도 감동이 가시지 않는 이 영상물은 LD시대에 이미 접해 본 애호가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DVD에는 슈베르트의 삶과 예술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해주는 미니 슈베르트 전기 <위대한 사랑, 커다란 슬픔>까지 담았다. 1994년 프라하의 체코 크리스털 상 수상작인데, '베토벤의 장례식', '슈베르트의 묘비', '슈베르트의 꿈' 등 26개의 주제로 내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슈베르트의 감동적인 음악이 가슴 깊이 스미게 만들었다. 감히 우리나라 음악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영상물이라고 단언한다.

BBC/Opus Arte
OA 0893

쇼팽의 피아노 음악
-전주곡 Op.28/연습곡 Op.10&Op.25/소나타 O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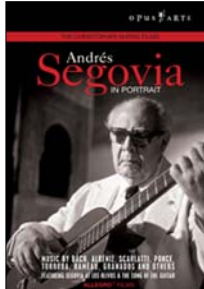
프레디 켈프& 앤절러 휴이트의 얼굴을 보라!
보고 싶던 우리 시대의 매혹적인 피아니스트 세 명이 쇼팽의 피아노 명곡들을 연주해준다. 쇼팽의 전주곡 Op.28은 최근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 베토벤 피아니스트로 각인된 칠레의 명 피아니스트 알프레도 페를이 연주했고, 두 세트의 연습곡(Op.10과 Op.25)은 BIS레이블에서 활동하는 미남 피아니스트 프레디 켈프가 연주했다. 켈프는 한 곡마다 옷을 다르게 입고 나오고 배경까지도 바뀌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며 이 영상물을 만들었는가를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B플랫 단조 Op.35는 하이퍼어리언에서 바흐 전문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친 앤절러 휴이트가 연주해준다. 쇼팽의 이런 명곡들 전곡을 잡은 영상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피아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선물해도 좋겠다! 모두 2003년 최신 영상.

BBC/Opus Arte
OA 0905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초상

탱고 거장의 모든 것을 보여주다

'현대 탱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밴드 리더 겸 작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물이다. BBC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방대한 기획과 영상자료는 놀라울 정도! 피아졸라 한테 직접 마이크를 주어 그의 육성으로 솔직한 본인의 음악관과 거칠고 복잡한 자신의 개인적 삶 그리고 직업적 삶을 일목요연하게 듣게 되고,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와 함께 연주했던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실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확인한다. 1989년 음원으로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친 '탱고 누에보'의 스튜디오 녹음이 담겨있다는 사실도 특별하고 놀랍다. 또 <피아졸라: 그 인간과 음악>이란 타이틀의 부록에는 54분이나 되는 추가 인터뷰를 수록했다. 총 213분. 영어 자막처리 확실하게 되어 있음.

BBC/Opus Arte
OA CN0931 D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초상

무조건 모셔 와야 할 위대한 '기타의 시인'
바이올린의 귀재 파가니니, 피아노의 귀재 리스트, 그리고 기타의 귀재, 누굴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스페인 이 낯은 위대한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다. 그런데 파가니니나 리스트의 영상을 볼 수 있는가! 하지만 세고비아의 영상은 볼 수 있다. 우리는 엄청난 행운이다. 어린 시절 스페인 기타 소리에 매료되어 민속악기의 위치에 있던 악기를 세계의 콘서트 무대에 옮겨놓았던 기타의 전설! 그의 일생을 다듬은 이 결정판에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스카를라티, 라모, 소르, 바흐, 쇼팽 등의 주옥같은 명곡들이 촉촉하게 흐르는데 그가 연주하는 음악들은 모두 시가 된다. 한마디로 감동의 도가니다! 크리스토퍼 누펜 예술영상의 최고봉! 이 영상물을 내놓고 크리스토퍼 누펜 스스로도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툼한 부클릿에는 백발 노년에 연주하던 큼직한 칼라사진과 그림이 들어 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다. 이 부클릿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구매 욕구를 훨씬 더 강렬하게 부추길 것이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자막. 196분.

BBC/Opus Arte
OA 0911

바그너: 발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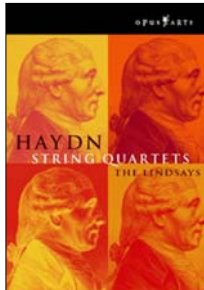
하리 쿠퍼의 예리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반지>시리즈 최고의 인기작
첨단 시설로 재무장한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가극장은 의욕적인 프로덕션을 연달아 선보이며 라 스칼라의 아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유럽 오페라계의 새로운 명문이다. <반지> 4부작의 전반부 두 편은 2003~04년 시즌에 공연되었는데, 바이로이트 역사상 최고의 격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하리 쿠퍼가 연출을 맡았다. 특히 본 공연은 베를린의 도이치 슈타츠오퍼를 위한 개정판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어 바이로이트에서의 전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다소 순화되고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수용할만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발퀴레>는 지크문트와 지글린데의 거역할 수 없는 근친상간적 사랑, 신의 신분이면서도 수많은 약점을 지닌 보탄 일가의 문제, 애증이 교차하는 브륀힐데와 그녀의 부친인 보탄과의 논쟁을 통해 영웅 지크프리트의 등장을 예고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반지> 4부작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다.

BBC/Opus Arte
OA 0910

바그너: 라인의 황금

'바이로이트의 전설' 하리 쿠퍼의 업그레이드된 <라인의 황금>

바이로이트 가극장의 <반지> 공연사에서 가장 큰 논란과 격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연출자로는 1970년대 후반의 파트리스 세로, 1980년대 후반의 하리 쿠퍼가 꼽힌다. 두 연출 모두 영상물로 제작되었으나 쿠퍼의 것은 DVD로 재발매되지 않아 큰 아쉬움을 주었다. 그러나 하리쿠퍼가 1990년대에 베를린 슈타츠 오퍼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연출한 <반지>의 영상물이 드디어 발매된다. 2003시즌과 2004 시즌에 걸쳐 바르셀로나의 리세우 극장에 올려졌던 시리즈의 일환이다. <라인의 황금>은 나홀로 걸쳐 펼쳐지는 전체 사이클의 전야(前夜)에 해당하는 작품이며 반지를 둘러싼 권력욕의 근원, 보탄의 책임과 신들의 운명 그리고 파프너에게 넘어간 반지의 소재를 설명한다. 전위적이었던 바이로이트 프로덕션에 비해 하리 쿠퍼의 연출은 훨씬 설득력이 커졌으며,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리세우 극장의 무대를 활용하여 빛나는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이 자랑하는 베이스 연광철이 거인 파즐트 역을 맡았다.

BBC/Opus Arte
OA 0920 D(2DVDs)

하이든: 현악 사중주

연주: 린지 사중주단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하이든 해석자들

21세기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위대한 현악 사중주단 린지 사중주단의 주옥같은 하이든 현악 사중주 7곡 음원을 따스한 영상과 함께 담았다. 하이든, 베토벤, 바르토크 등의 주요 현악 사중주곡들로 화려한 명성을 쌓은 린지이지만, 그들의 하이든 녹음은 특히 정평이 나 있다.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두 대, 아마티 비올라 그리고 루지제로 첼로가 빛내는 린지의 하이든 음향은 기교적 완성은 물론, 따스하면서도 정교한 하이든 사운드의 전형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쏙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연주다! 2004년 핀란드 쿠모 실내악 페스티벌의 실황인데, 실황이지만 초고음질을 자랑하며 쿠모 아트 홀을 안방에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완벽한 서라운드 사운드로도 들을 수 있다. 제 1바이올린의 피터 크로퍼가 각곡의 연주에 앞서 간단한 해설까지 한다.

-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DVD



BBC/Opus Arte
OA 0900

트로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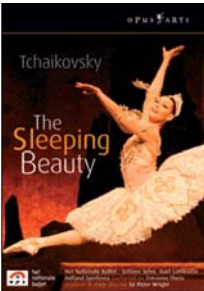
샤를레 극장에서 웅장하게 펼쳐진 베를리오즈 탄생 200주년 기념공연 바그너를 예비한 혁신적 작곡가였던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2003년 10월 파리 샤를레 극장에서 펼쳐진 역사적 공연을 담았다. <트로이 사람들>은 1,2막에 트로이의 멸망을, 3,4,5막에 트로이를 탈출한 영웅 에네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돈의 비극적 사랑을 다룬 베를리오즈 최고의 대작! 사실상 두 개의 오페라가 결합된 것이기에 상연 시간만도 4시간을 훌쩍 뛰어 넘는다. 존 엘리엇 가디너 지휘의 혁명과 낭만 오케스트라가 베를리오즈의 장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남김없이 재현한 가운데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카산드라), 수잔 그레이엄(디돈), 그레고리 쿤데(에네) 등 초대형 가수들이 열연을 펼친다. 거대한 반사경을 무대 뒤에 비스듬히 세워 등장인물들의 뒷모습까지 포착한 탁월한 무대 연출, 엑토르의 유명과 말의 질주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첨단 영상장치 등 현대적 연출의 총화일 뿐 아니라 무려 56분짜리의 흥미진진한 제작 다큐멘터리가 스페셜 피쳐로 제공된다.



BBC/Opus Arte
OA 0939

미켈란젤리 그 유명한 갈루피 소나타 연주하다!

미켈란젤리가 연주하는 베토벤 / 스카를라티 / 갈루피(1962년 이탈리아 투린 녹음)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너무도 귀중한 영상물. 알프레드 코르토로부터 '새로운 리스트의 탄생'이라는 격찬을 받았고, 아르헤리치와 폴리니라는 대 피아니스트를 키워냈던 피아노의 완벽주의자, 그의 이 진기한 기록물은 너무도 감동적이다. 20대 초반부터 평생에 걸친 관심으로 연주했던 베토벤의 소나타 Op.2의 No.3,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정신의 승화를 들려주는 베토벤 후기 소나타 Op.111의 32번, 치밀한 분석으로 작품의 장점을 속속들이 파헤친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그리고 모든 애호가들이 가장 궁금해 할 레퍼토리인 갈루피의 영롱한 소나타가 실렸다. 미켈란젤리의 뛰어난 감각과 음악성 덕분에 갈루피의 소나타는 수정처럼 맑은 얼굴로 다가온다. 1962년 흑백영상이지만 디지털 리메스터링 음향은 상당히 좋다. 거장은 42세 때의 모습이다. 84분.



BBC/Opus Arte
OA 0904 D(2DVDs)

차이코프스키: 발레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무용: 헤트 국립 발레 / 연주: 홀랜드 심포니아 / 지휘: 에르마노 플로리오

네덜란드 발레단의 결정판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발레단인 헤트 국립 발레(네덜란드 국립 발레)의 2003년 공연 실황으로, 차이코프스키 발레의 불멸의 명작인 <잠자는 숲 속의 미녀>의 결정판이다! 고전 낭만주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순수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차이코프스키의 이 걸작이 정상급 안무가들에 의해 풍부한 무용언어로 재현되었다. 안무는 페티파와 라이트의 공동작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페티파의 원작에다 그것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안무가 피터 라이트(Peter Wright)의 1981년 안무를 도입해 1989년에 보다 큰 무대를 위한 작품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필립 프라우즈의 매혹적인 바로크 세트와 의상, 러시아 황제 차르의 궁정 스케일에 걸 맞는 화면 가득 찬 웅장함이 압권이다. 180분. 아나폴픽 화면



BBC/Opus Arte
OA 0933

돈 카를로

세계 오페라계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첫 영상물

현재 유럽 오페라 계는 새로운 테너의 출현으로 들떠있다. 멕시코 출신의 롤란도 비아존(Rolando Villazon)이 그 주인공이며 그의 광풍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호세 카레라스의 열정, 플라시도 도밍고의 연기력,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미성을 두루 겸비한 무결점 테너로 불리는 비아존은 이미 두 개의 독집 음반을 통해 전세계 오페라 팬을 열광시켰지만 본격적인 오페라 영상물은 이번이 처음이다. <돈 카를로>는 16세기 스페인 최전성기의 궁정을 배경으로 5명에 달하는 주인공들이 운명적인 비극으로 치닫는 이야기이며, 인본주의자로서 베르디의 모든 역량이 집결된 감동적인 명작이다. 2004년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인 이 영상물은 롤란도 비아존 외에 로버트 로이드(펠리프 2세), 아만다 루크로프트(엘리자베타), 드웨인 크로프트(로드리고), 비올레타 우르마나(에볼리), 그리고 천재 지휘자 리카르도 샤이가 드림팀을 구성하여 그 감동을 폭발적으로 구현했다. 스페인 왕가의 영묘(靈廟)인 엘 에스코리알과 십자가에 못박힌 거인의 발을 길게 드러낸 빌리데커와 불꽃강 구스만의 무대는 이 작품의 압울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성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단연코 최고의 영상물이다.

TDK DVD Best Titles



TDK DVUS-CLOPCAR

카르멘

제피렐리(연출)와 클라이버(지휘)가 만난 빈 슈타츠오퍼의 기념비적 실황

2004년 7월, 독일 지휘계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매니아 층의 가장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영면했다. 남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악구마다 천재적 광휘를 불어 넣었던 카를로스 클라이버! 그러나 클라이버는 녹음을 극도로 기피했기에 그 명성에 비하면 남긴 자료가 너무도 빈약하다는 아쉬움이 크다. 그렇기에 프랑코 제피렐리가 연출한 1978년 12월 빈 슈타츠오퍼 실황은 더없이 소중하다. 이 프로덕션은 이후에도 수없이 빈 슈타츠오퍼 무대에 올려졌지만 그 어느 것도 클라이버의 첫 공연에 필적할 수 없다는 평판을 받아왔다. 클라이버의 번뜩이는 지휘도 대단하지만 무대 전체를 꽉 채우며 놀라운 생동감을 이끌어 낸 프랑코 제피렐리의 연출에도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엘레나 오브라츠소바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카르멘을 노래하며, 플라시도 도밍고(돈 호세)의 연기는 엄청난 감동으로 관객의 갈채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모든 면에서 소장가치 100%의 기념비적인 영상물!



TDK DVUS-OPLCDH

호프만의 이야기

프랑스 최고의 낭만오페라가 들려주는 호프만의 '세 가지 색 사랑'

<호프만의 이야기>는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문호 E.T.A. 호프만이 회상하는 초현실적인 러브 스토리 세 편에 프랑스의 오페바호가 곡을 붙인 환상적인 걸작 이다. 인형 올랭피아, 몸이 약해서 노래 부르다 죽는 안토니아, 베네치아의 고급 창녀 줄리에타가 그의 옛 사랑이다. 여기에 오페라 가수 스텔라와 호프만의 뮤즈까지 합치면 그의 여인은 다섯으로 늘어난다. 유럽 오페라 연출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버트 카르센의 경이로운 무대를 담은 바스티유 극장의 2002년 10월 실황에는 쓰리 테너급의 명가수로 인정받는 실력파 닐 쉬코프(호프만)를 비롯하여 데지레 랑카토레(올랭피아), 루스 앤 스웬슨(안토니아), 베아트리스 우리아-몽종(줄리에타), 수잔 멘처(뮤즈, 니콜라우스) 등 세계적 가수들이 상대역으로 출연한다. 여기에 브린 터펠까지 악마 역으로 가세했다. 특히 프랑스가 자랑하는 메조소프라노 베아트리스 우리아-몽종의 고풍적 카리스마와 대담한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영상물이다.



TDK DVUS-OPBOH

라보엠

홍혜경이 뮤제타를 노래한 라 스칼라의 2003년 최신 실황

극사실주의적 연출로 유명한 프랑코 제피렐리는 1963년부터 <라보엠>을 연출했는데, 이 영상물에 수록된 2003년 2월의 라 스칼라 실황은 1981/82시즌의 메트로폴리탄 프로덕션에 기초하고 있다. 작은 소품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무대는 훈훈한 정감이 넘치는 이 오페라와 잘 어울리며 특히 눈 쌓인 3막의 정경은 가슴이 아리도록 감동적인 노래와 어우러져 엄청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제피렐리의 <라보엠>은 뮤제타 역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욕의 대표적 미미로 통하는 홍혜경이 굳이 뮤제타를 맡은 것은 그런 연유이다. 로돌포의 마르셀로 알바레즈와 미미 역의 크리스티나 갈라르도-도마는 남미 출신의 세계적 오페라 가수들이며 너무나도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전통적인 명반에 결코 못지않은 최고의 연주를 이끌어냈다. 라 스칼라 가극장이 보수 중인 시점이어서 첨단 시설의 아르침볼디 극장에서 공연된 것이며 스페셜 피쳐로 <라보엠>에 대한 제피렐리의 회상이 수록되었다.



TDK DVUS-CLOPIT

일 트로바토레

카라얀의 <일 트로바토레>, 그 전설적 명성을 영상으로 확인한다!

오페라 지휘자로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빈 슈타츠오퍼와 잘츠부르크 축제극장을 중심으로 활약했는데 가장 즐겨 지휘한 작품의 하나가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였다. 특히 갈라스와 디 스페파노가 열창한 1956년 음반(EMI) 못지않게 전설적인 것이 1978년 5월의 빈 슈타츠오퍼 실황 영상이다. 당초 프랑코 보니졸리가 만리코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컨디션 난조로 인해 플라시도 도밍고가 급히 일정을 조개어 무대에 섰는데 오히려 이 덕분에 전설적인 실황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도밍고 혼자 이 무대를 이끌지 않는다. 우아한 자태와 음성을 지닌 전성기의 라이나 카바이반스카(레오노라), 영화배우같은 풍채의 피에로 카푸칠리(루나 백작), 집시 여인의 캐릭터를 강하게 부각시킨 피오렌차 코스토(아추체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최상급이다. 카라얀의 지휘는 극적 박력으로 넘치는 이 오페라에 섬세한 서정성까지 불어 넣었으며 직접 연출까지 맡아 누구라도 만족할만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25년 전 자료이지만 화질과 음질도 수준급이다.



TDK DVWW-COWINT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바리톤) / 알프레트 브렌델(피아노)

1979년 브렌델과의 겨울여행

수많은 콘서트와 녹음을 통해 슈베르트 연가곡 가수의 전형처럼 추앙 받았던, 피셔-디스카우가 54세 되던 해인 1979년에 남긴 영상이다. 1979년 1월 베를린의 지멘스빌라에서 녹취했다. 슈베르트 연가곡이라면 이미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제럴드 무어와 최고의 녹음을 완성한 그였지만, 이 영상에서는 여섯 살 아래인 오스트리아 피아니스트 알프레트 브렌델과 호흡하며 보다 원숙한 해석을 들려준다. 56분이나 되는 보너스 트랙에는 녹음에 앞서 그가 브렌델과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 한곡에 대해 치밀한 해석을 준비하는 모습이 자유로운 영상으로 담겼다. 어둡한 화면에서 위대한 두 음악가의 슈베르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귀중한 영상물로 소장 가치가 매우 높다. 러닝타임: 73분/56분(보너스 트랙)



TDK DVUS-CODSM

슈베르트: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연주: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바리톤) / 안드라스 쉬프(피아노)

20세기 위대한 슈베르트 가수의 '황혼의 콘서트'

슈베르트 가수의 대명사,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의 1991년 오스트리아 콘서트 실황 영상물이다. 당시 피셔-디스카우의 나이는 66세. 하지만 흰칠한 키에 유난히 맑은 눈을 가진 그는 세련된 무대 매너로 <물방앗간 아가씨> 전곡을 깔끔하게 부른다. 피아니시모가 인상적인 '알고 싶어 하는 사람', '휴식' 등에서는 왕년 명가수의 내면적 성찰과 기품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주자 안드라스 쉬프 역시 슈베르트 피아노 작품이나 가곡을 집중 녹음한 바 있기에 (페터 슈라이어와의 동곡 녹음도 있다) 피셔-디스카우의 듣직한 파트너다. 보너스 트랙의 인터뷰에서는 음악가인 아들 얘기, 한창 지휘자로서 활동했던 얘기 등 그의 삶과 음악에 관한 중요한 얘기들을 들려준다. 성악지망도는 물론 리트 반주를 희망하는 피아니스트들에게도 반드시 시청해야만할 훌륭한 교본과도 같은 영상물. 19! 91년 6월 20일, 오스트리아 펠트키르히(포어알베르크) 몬트포르트하우스 실황.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83분.



TDK DVUS-OPSON

몽유병의 여인

낭만주의의 몽환적 분위기를 상징하는 걸작 오페라, 그 40년만의 영상물

19세기 전반기의 낭만 오페라에서는 유독 정신병이나 몽유병에 걸린 여주인공이 많이 등장한다. 베르디의 <맥베트>에서는 몽유병이 자살이라는 파국에 이르지만, 벨리니의 <몽유병의 여인>에서는 주인공 아미나가 연인에게 의심을 받는 단서와 오해를 푸는 실마리를 모두 몽유병이 제공함으로써 해피 엔딩이 된다. 2004년 1월 마지막 무지칼레 피오렌티노(피렌체) 실황. 가장 청아한 음성의 벨칸토 소프라노로 꼽히는 에바 메이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미성의 테너 호세 브로스가 주역을 맡았다. 또한 올가를 예술의 전당에서 <나부코>를 지휘하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거장 다니엘 오렌이 지휘대에 섰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탈리아 극장계이지만 페데리코 티에치의 연출은 심리학적 분석을 가미한 최신 스타일이다. 시대배경을 19세기말로 바꾼 가운데 모든 사건은 아미나의 꿈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해석했다.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건너는 몽유 상태의 아미나'는 알프스의 눈 덮인 산에 놓인 절골 다리를 걷는 것으로 설정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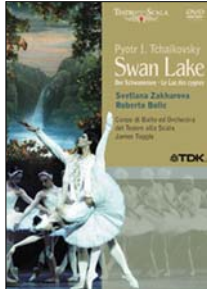


TDK DVUS-OPIP

청교도

빈첸초 벨리니의 가장 아름다운 최후의 걸작, 그 사상 첫 영상물

로시니, 도니체티와 더불어 벨칸토 오페라의 3대 작곡가로 꼽히는 빈첸초 벨리니의 마지막 작품인 <청교도>의 사상 첫 영상물이다. 이 오페라는 17세기 중반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배경으로 청교도 지도자의 딸인 엘비라와 왕당파인 아르투로의 안타까운 사랑을 어떤 오페라보다도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당대의 오페라와 발레에서 크게 유행했던 '광란의 장면'을 가장 탁월하게 다룬 명작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대명사인 에디타 그루베로바(엘비라)의 절창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의 젊은 유망주 호세 브로스(아르투로)와 카를로스 알바레스(리카르도)의 기량에도 주목해야 할 2001년 2월의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실황. 특히 호세 브로스는 벨리니가 당대의 명테너 조반니 바티스타 루비니를 위해 삽입한 하이C#과 하이D의 엄청난 고음을 팔세토를 사용하지 않은 진성으로 불러낸다.



TDK DVWW-BLSL

백조의 호수

우리 시대 최고의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의 '백조'

이 세상에는 훌륭한 발레리나들이 많이 있지만 '발레리나 아솔루타(ballerina assoluta)'로 불리는 절대적 경지에 오른 무용수는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신이 빚어낸 발레리나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는 키로프 발레를 거쳐 현재 볼쇼이 발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세계 각지의 일류 발레단에 초청받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발레리나 아솔루타이다. 2005년 초가을에 서울을 방문하는 볼쇼이 발레의 개막 공연(10월 5일, 지젤)에도 당연히 그녀가 나선다. 2004년 4월 밀라노 라 스칼라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자하로바를 객원 주역으로 초빙하고 지크프리트 역에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미남 발레리노 로베르토 볼레를 기용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연되는 프리바-이바노프의 안무가 아니라 구소련의 블라디미르 부르마이스터가 개정한 안무를 사용한 보기 드문 공연이라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2막의 호숫가 장면은 이바노프의 안무를 그대로 살리되 오데트가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는 짧은 프로로그를 삽입하고 1, 3, 4막의 구성에도 상당한 손질을 가했다.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TDK DVWW-OPMLES

마농 레스코

최고의 명가수 마리아 굴레기나와 호세 쿠라의 드라마틱한 만남

<마농 레스코>는 푸치니의 초기작이지만 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트리스탄과 이졸데>요, <보니와 클라이드>라 불리기도 한다. 세상의 상식과는 격리된 듯한 두 남녀의 무분별한 사랑이지만 그들에 대한 파스한 애정을 악보에 담아낸 걸작이다. 특히 뉴올리온즈의 황야에서 죽어가는 마농의 피날레 씬은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다. 1998년 라 스칼라 무대에 오른 <마농 레스코>는 큰 화제를 모았다. 우선 한창 떠오르는 스타로 각광받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마리아 굴레기나와 '마리오 델 모나코'의 재래라고 불린 아르헨티나의 신예 드라마틱 테너 호세 쿠라가 한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로 대접받는 이들의 7년 전의 모습은 싱그럽기까지 하다. 또한 라 스칼라의 수장이지만 푸치니 오페라에는 잘 나서지 않았던 리카르도 무티가 직접 지휘봉을 잡아 열정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릴리아나 카니니의 연출은 사실성을 기초로 하되 무척 절제된 무대를 설계했으며 여유롭게 섬세한 동선과 감각적인 연기를 이끌어 냈다.



TDK DVWW-CLOPMF

마술피리

장 피에르 폰넬 연출 / 1982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

정겨운 성악가들이 만들어낸 동화화도 같은 무대.

1978년 처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무대에 오른 뒤 무려 9년 동안이나 반복 공연되면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장 피에르 폰넬 연출의 마술피리. 그 중 1982년 8월 21일의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야외무대이자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낯익은 바위승마학교(Felsenreitschule)에서 펼쳐진 공연으로 베로나 아레나에 필적하는 넓은 무대와 암벽배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폰넬의 연출이 탁월하다. 전반적인 연출의 분위기는 사실적이면서도 동화처럼 아기자기하고 정겹다. 페터 슈라이어의 감미로운 타미노, 일레아나 코트루바스의 사랑스러운 파미나,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전율적인 밤의 여왕, 마티 탈베라의 근엄한 자라스트로, 이 프로덕션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안 비슈의 파파게노 등등 각 배역에 최적화된 올스타급 성악진의 화려한 면면만으로도 즐겁다. 지휘대와 글로켄슈필을 바쁘게 오가다가 한순간 무대에도 참견하는 제임스 레바인의 모습도 재미있다.

마리아 칼라스 - 예술과 사랑을 위해 살고 죽고

위대한 디바의 후반생에 대한 집중조명

영원한 전설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한 감동적인 영상물이다. 코벤트 가든에서 칼라스가 마지막으로 오페라 무대에 섰을 때의 역할이 바로 토스카였는데, 이 DVD는 바로 <토스카>의 1,2,3막을 빠대로 하고 중간에 그리스의 선박재벌 오나시스와의 만남, <노르마>에 얽힌 영상, 그리고 그녀의 최후의 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조명을 하고 있다. 그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레이스 범브리를 위시하여 티토 고펜, 안토니오 파파노, 플라시도 도밍고, 프랑코 제피렐리 등 너무도 화려한데, 칼라스의 생애를 다룬 몇몇 영상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다. 보너스 트랙의 '예술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를 부르는 칼라스의 모습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TDK DVUS-DOCMC

Arthaus DVD Best Titles



Arthaus DVD 101 065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연주: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 / 지휘: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완전히 해석, 분석한 이탈리아 거장 지휘자 줄리니의 리허설과 콘서트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 홀 양쪽에서 대성공을 거둔 위대한 이탈리아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완전히 해부, 분석한다. 줄리니의 음악을 들으면, 정교함과 세련성 외에 풍성한 현악기 텍스처와 따스한 서정이 정말 일품인데,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어떻게 나왔는지 리허설은 잘 보여준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휘자도 많지만, 줄리니는 따스한 눈빛과 자상한 제스처로 단원들을 이끄는 젠틀맨 지휘자다. 스스로도 음악가는 군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의도는 '강력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원들과 인간적 교감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멋진 외모에 깃든 온화함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만, 정말 인자한 이탈리아 할아버지다. 브루크너 애호가들은 잘 알겠지만, 줄리니는 DG에 빈필과 위대한 9번 녹음을 남긴 바 있고 이 곡에 관한 한! 최고의 해석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곱씹어 넘겨야 할 보약이다. 한 두 번 보고 마는 영상도 많지만,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디뷔디가 바로 그것이다. 슈투트가르트 악단과 함께 하고 있니 줄리니는 독일어로 진행한다. 물론 그의 독일어는 영어자막으로도 나온다. 123분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Arthaus DVD 100 333

스트라빈스카: 봄의 제전

연주: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이 시대 최고의 거장 지휘자와 비운의 천재연출가의 충격적 만남. 독일의 젊은 감독 올리버 헤르만의 충격적인 영상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 단편영화는 남편이 죽은 후 무기력증에 빠진 에스터, 아버지의 성적학대 끝에 섹스중독에 빠져버린 루치아, 심각한 결벽증으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바르도트 박사 세 사람이 환상 속에서 부두교 풍의 주술적인 전례를 통해 심리적인 상처를 말끔히 치유 받는 과정을 그린 충격적인 영상. 래틀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음악도 압도적이고, 현대인의 심리적인 공황과 초자연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종교행위를 강렬하게 대비한 헤르만의 풍부한 상상력과 실험정신은 실로 감동적이다. *5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상영작/2004년 루체른영화제 황금장미상/2004년 비버리힐즈영화제 최우수국영영화상/골든 프라하 국제TV페스티벌 특별상



Arthaus DVD 101 243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감상하는 담백한 비쉬코프의 브람스 교향곡들 1,2번

Avie를 통해 발매된 전집과 동일한 연주로 2002년(1번)과 2004년(2번)에 이 악단의 홈그라운드인 쾰른의 필하모니에서의 행해진 세션을 기록한 것이다. 군살이 말끔하게 제거된 비쉬코프의 단정한 브람스 교향곡들을 고해상도의 영상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나,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푸짐한 부록이다. 비쉬코프의 성장과정을 다룬 한 시간 분량의 도큐먼트리가 그것으로 고향 레닌그라드에 관한 감흥과 음악 수련과정, 지휘자로서의 이력 등이 흥미롭게 소개되고 있다. 비쉬코프의 부인인 피아니스트 마리유 라베크, 은사이자 러시아의 위대한 지휘자인 일랴 무신,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 등이 찬조출연하며, 비쉬코프가 지휘하는 영웅의 생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베디 레퀴엠, 말러 5번 등등의 단편들도 만날 수 있다. 보이소프라도 솔리스트로 활약하던 당시의 비쉬코프의 미성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나는 비쉬코프의 템포 선택에 호감이 간다. 특히 그가 빚어낸 빠른 악장들은 경박하지 않으며 강건하면서도 유연하다. 지휘자와 녹음 기술진은 균형 잡힌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제대로 뽑아내었고, 그 결과 작품의 텍스처가 충분히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마디로 이 음반은 좋은 브람스다. 나는 이 연주들을 제대로 즐겼으며 앞으로도 큰 즐거움을 가지고 이들의 연주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 - John Quinn, MusicWeb International

드디어 마무리되는 비쉬코프의 브람스 교향곡 영상전집 3,4번

지난번 발매된 교향곡 1,2번을 통해 온화하고 유연한 브람스 상을 정립했던 세미온 비쉬코프와 쾰른 WDR 방송교향악단이 전작에 버금가는 높은 완성도의 교향곡 3,4번을 들고 다시금 우리 앞에 등장하였다. 역시 쾰른의 필하모니에서 관객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녹음세션을 옮긴 것으로 3번은 2002년 5월, 4번은 2003년 10월의 기록이다. 교향곡 3번을 관통하는 호방한 박력과 교향곡 4번에 내재된 감성적인 비감을 별다른 과정 없이 담담하게 그려가는 비쉬코프의 지휘는 WDR 방송교향악단의 우수한 앙상블과 더불어 온온한 체취가 느껴지는 따뜻한 브람스를 이끌어내었다. 비쉬코프의 성장과정과 음악이력을 담았던 전작의 특별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이번 신보에도 푸짐한 보너스가 함께한다. 2004년 겨울에 있었던 WDR 방송교향악단의 유럽 투어 중 나폴리, 런던, 빈에서의 영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그것. 일본의 신에 바이올리니스트 사야가 쇼지와 함께한 브루흐, 차이코프스키의 협주곡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10번의 단편을 만날 수 있으며, 비쉬코프와 오케스트라 사이의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thaus DVD 101 245



Arthaus DVD 101 047

브람스: 독일 레퀴엠 Op.45

연주: 바바라 보니(소프라노) / 브린 터펠(바리톤) /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스웨덴 방송합창단 / 에릭 에릭스 실내 합창단 / 지휘: 클라우디오 아바도

1997년 브람스 타계 100주년 기념 연주회 실황 슈만과 자신의 어머니를 깊이 생각하며 썼던 브람스의 가장 위대한 합창곡 <독일 레퀴엠>이 믿음직한 아바도의 손길로 빛어졌다. 아바도는 똑같은 악단과 합창단으로 이미 1992년에 명 녹음을 남긴 바 있는. 이 곡에 정통한 지휘자다. 콘서트 내용은 기념비적인 것인데, 브람스가 타계한지 100주년이 된 해인 1997년 4월에 작곡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빈의 무직페라인에서 있었던 연주회 실황이기 때문이다. 제 5곡에서 두 손을 모으고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하는 바바라 보니, 제 3곡에서 우렁차고 위엄 있게 노래하는 브린 터펠도 너무 좋다. 거기다 깨끗한 화면에 맑고 풍성한 음향까지, 독일 레퀴엠 영상물로 이보다 더 좋은 것, 현재는 없다!



Arthaus DVD 101 175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 슈투트가르트 개행어 칸토라이 / 바흐 콜레기움 슈투트가르트 / 지휘: 헬무트 릴링

모차르트가 편곡한 독일어 버전으로 종교음악의 대가 헬무트 릴링과 만난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가 영어 텍스트로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독일어로 노래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독일어 제목(Der Messias)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아이템 역시 독일어로 노래한 <메시아>를 담고 있다. 모차르트가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되고 있고, 헬무트 릴링은 탁월한 독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다. 종교음악의 대가인 헬무트 릴링의 지휘에 대해서는 평가를 불허한다. 소프라노 돈나 브라운을 제외하면 나머지 가수들은 우리 애호가들에겐 조금 낯선 독창자들이지만 아주 매력적인 가창실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메시아>의 독일어 공연 볼 기회란 좀처럼 올 것 같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위대한 명곡의 독일어 버전을 하나 구비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군다나 릴링의 해석인데! 물론 자막은 독일어 외에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Arthaus DVD 100 417

글루크: 오르페오와 유리디체

가족 자켓을 입고 전자 기타를 든 현대적 오르페오의 "죽은 아내 되찾기"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는 18세기 오페라 개혁운동을 대표하는 명작이며 '유리디체를 입고'를 비롯한 주옥같은 아리아와 발레 음악으로 유명하다. 독일 출신의 혁신적 연출가 하리 쿠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취해진 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 오르페오는 가족 자켓과 청바지 차림에 전자 기타를 들고 다니는 로커이며, 유리디체는 뱀에 물린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으며 설정한 것이다. 원래 베를린 코미세 오페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1991년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되었을 때는 그해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드레아스 쉰이 가장 달고 싶은 선배로 꼽았던 독일의 카운터테너 요헨 코발스키가 오르페오 역을 맡아 탁월한 노래와 강렬한 연기를 펼치고 있으며, 영국의 젊은 소프라노 질리안 웹스터가 유리디체를 노래한다. 카운터테너를 기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지만 혁신적 연출과 달리 연주는 전통에 충실한 편이다.



Arthaus DVD 100 707

구노: 로미오와 줄리엣

금세기 최고의 성악가 커플, 알라냐와 게오르규 성악계 사상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녔으며, 우리나라 연주회 사상 가장 비싼 연주회로 화제를 모았던 로베르 알라냐와 게오르규 커플을 이번에는 영화와 오페라를 결합한 새로운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만난다. 연출을 맡은 바바라 윌리스 스워트는 체코 즈비코프에 자리한 중세시대 성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와 구노가 만들어낸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오페라 전곡의 지루함을 피하고자 극 전개상 중요한 부분들을 70분 정도의 시간으로 과감하게 줄였으며, 주연을 제외한 배역에 성악가가 아닌 배우들을 기용하여 더욱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답답한 오페라 무대를 벗어나 아름다운 체코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자유로운 카메라 워크는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한 앵글을 통해 곡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돌비 디지털 5.1 채널은 물론이고 DTS5.1 채널까지 지원되는 뛰어난 음질은 금세기 최고의 성악가 커플인 알라냐와 게오르규의 절정상을 감상하는데 더 없는 만족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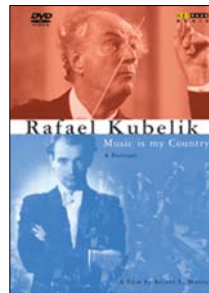


Arthaus DVD 100 449

모차르트: 레퀴엠 KV626

에디트 마티스(sop) / 트루멜리제 슈미트(alt) / 페터 슈라이어(te) / 권 하웰(bass) / 콜린 데이비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 합창단

모차르트의 마지막 걸작이 전통적인 해석으로 화려하게 재현되었다. 모차르트가 남긴 미완의 대작 '레퀴엠'은 1984년 전 세계를 모차르트의 열기 속으로 빠뜨렸던 밀로스 포만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우리에게 한층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다. 외모에서부터 모차르트를 빼어 닮은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마에스트로 콜린 데이비스 경(卿)이 이 위대한 걸작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감동적으로 펼쳐나간다. 이 영상물은 콜린 데이비스가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재직했을 당시인 1984년의 기록으로 동(同)악단의 본거지인 뮌헨 Herkulessaal에서 있었던 실황을 담았다. 당당한 스케일과 더불어 온화한 기운을 함께 머금은 콜린 데이비스의 전통적인 해석이 일품이며, 에디트 마티스와 페터 슈라이어라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남녀 리트가수의 미성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점 역시 놓칠 수 없는 매력거리다. 영국의 대표적인 베이스가수 권 하웰과 카라얀의 교향집전미사 실황으로 낮익은 독일의 실력과 알토 트루멜리제 슈미트가 나머지 두 솔로파트를 담당하였다.



Arthaus DVD 100 723

라파엘 쿠벨릭: 음악은 나의 고향

체코의 위대한 거장 지휘자의 삶을 그린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저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안 쿠벨릭의 아들로 태어나 1934년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데뷔해서 수많은 명연주와 명녹음을 남겼던 체코 지휘자 라파엘 쿠벨릭의 일대기를 스케치한 귀중한 영상물. 1914년 생으로 2005년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그는 카라얀, 번스타인, 솔티 등과 함께 20세기 가장 위대한 거장 중의 한사람이다. 쿠벨릭 음악은 자연스럽고 선율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라는 등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희귀한 영상들과 함께 감동적으로 전개된다.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 포노 포룸의 저명한 비평가 헨리 포겔 등 주위의 유명한 지인들과 그의 아들이 쿠벨릭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보낸다. 쿠벨릭 최고의 레퍼토리인 '몰다우'가 흐를 땀 눈물이 앞을 가린다. 감동적인 영상물이다.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자막. 125분.

BBC DVD 스테디 셀러



BBC DVD OA0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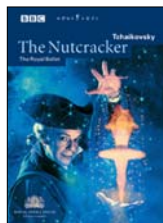
BBC DVD OA0856



BBC DVD OA0896



BBC DVD OA0866



BBC DVD OA0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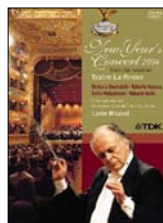
TDK DVD 스테디 셀러



TDK DVD DVUS-WPNK02



TDK DVD DVUS-WPNK03



TDK DVD DVUS-NYC4V



TDK DVD DVUS-COSMP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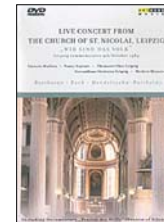


TDK DVD DVUS-OPSMPL2

Arthaus DVD 스테디 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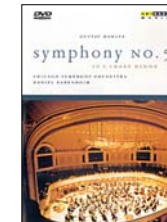
Arthaus DVD 100 027



Arthaus DVD 100 039



Arthaus DVD 100 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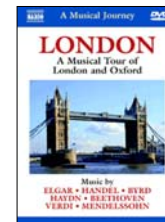


Arthaus DVD 100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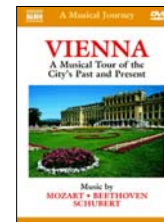


Arthaus DVD 100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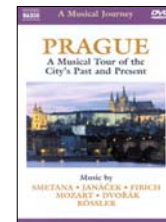
Naxos A Musical Journey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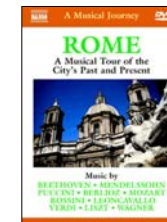
Naxos DVD 211 0501



Naxos DVD 211 0502



Naxos DVD 211 0503



Naxos DVD 211 0504



Naxos DVD 211 0506

Günter Wand Series



TDK DVD DVUS-COWAND1



TDK DVD DVUS-COWAND2



TDK DVD DVUS-COWAND3



TDK DVD DVUS-COWAN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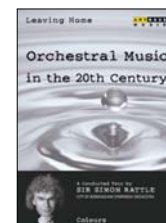
Simon Rattle Series



Arthaus DVD 102 033



Arthaus DVD 102 035



Arthaus DVD 102 037



Arthaus DVD 102 043



Arthaus DVD 102 045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8,800개 음반 / 130,000 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 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컨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 CD Quality (64K)

시험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청연 - Original Soundtrack

2005년 최고의 화제작 영화 <청연> OST...
70여명의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체코에서 녹음한 이번 <청연>의 OST는 영화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스트링의 물결 위에 가득 채워지는 8개의 혼,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하프 음색에 귀를 기울여 보면 어느새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착각이 들 것이다.



표지사진 : 2005년의 음반들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5년 12월호
통권 제 8호 발행 : 2005년 12월 25일
발행인 : 임용득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